

Style

조선일보

APRIL 2015 vol.124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BVLGARI

BRIDAL
Wear it with Love

RALPH LAUREN

Collection



Introducing

THE RICKY DRAWSTRING

RALPHLAUREN.COM

SEOUL DOSAN PARK 17, DOSAN-DAERO 45-GIL, GANGNAM-GU 02 545 8200



Dior PRESTIGE

NEW 프레스티지 화이트 콜렉션

화사하게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움

밝고 생기 있게 젊어 보이는 아름다운 피부의 비밀

장미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올 사이언스는 화이트 로즈의 변치 않는 고귀함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의 장미에서 추출된 농축액이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아시아 여성의 섬세한 피부를 위해 탄생된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콜렉션은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혀주어, 시간이 흐를수록 투명하고 건강하게 피어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로즈 드 그랑빌*과 결합된 새로운 화이트 로즈**는 다시 태어난 듯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주고, 더욱 화사하고 이상적인 탄력을 되찾은 피부는 고귀한 순백색의 장미 꽃잎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디올 가든에서 재배된 로즈 드 그랑빌에 대한 15년간의 연구 - 섬세한 피부에 대한 7년간의 노하우





OMEGA



Ladymatic

NICOLE KIDMAN'S CHOICE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Ω
OMEGA

BURBERRY

BURBERRY.COM





20



48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프랑스 하이 주얼리 & 워치 메종 반클로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 버터플라이 클립이다. 행복과 자유의 상징이자 반클로프 아펠의 영원한 자연 속 뮤즈인 나비 모티브를 우아하게 표현했으며 메종의 독보적인 주얼리 메이킹 기법이 느껴지는 스파이아의 화려한 그라데이션으로 생동감 넘치는 나비의 모습을 선보인다. 문의 02-3479-6032



36



18

- 20 **THE WORLD OF BESPOKE SERVICES** 상황 표준화되어가는 자동차 세계에서 맞춤형 요소가 담백 들어가는 비스포크 제품은 점점 희소해지고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희소성이야말로 비스포크 자동차를 더욱 뿌리박기 힘든 유혹의 대상으로 만든다. 세계 3대 명차로 불리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의 비스포크 서비스 현주소를 살펴본다.
- 22 **MYSTICAL NATURE** 화려한 꽃과 나비,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 곤충과 동물까지, 주얼리로 다시 태어난 자연의 신비로움.
- 24 **ULTIMATE DRAMA** 수많은 워치 브랜드가 여성 워치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아름다운 기계식 워치를 모두 모았다.
- 26 **CANDY SHOES** 색사할 것만 같던 스틸레토 힐이 민트, 베이비 핑크, 파플 등 사랑스러운 컬러의 옷을 입고 반전 매력을 꾀한다.
- 28 **LIGHT STEPS** 비즈니스 캐주얼이 보편화되면서 편안한 신발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완벽한 착용감, 드레스 슈즈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멋스러운 디자인, 가벼운 무게까지.
- 30 **ART OF LIVING** 1920년대부터 집이라는 공간에서 창조된 영감을 받은 에르메스는 다채롭고 풍부한 홈 컬렉션을 출시하며 집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 32 **YELLOW SPLENDOR**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는 불이라는 계절과 몸서도 잘 어울리는 진기한 옐로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어떤 것대로 평가해도 최고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유색 다이아몬드의 진수를 보여줬다.
- 34 **DREAM OCEANUS** 이제 해외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손수 맞출 필요가 없다. 카시오가 세계 최초로 전파 수신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전파 시계 오션스 OCW-G1000을 출시한 것.
- 36 **SOMETHING SPECIAL** 남자와 여자, 워트와 시크, 트렌드와 클래식, 식을 넘나드는 백 & 스타일링 가이드.
- 44 **DOUBLE LIFE** 실용적인 소재와 매력 가득한 스타일링, 캐주얼하면서도 럭셔리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페이(Fay)의 스타일은 약속하면서도 세련되게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멋진 룩을 입은 세련된 패션 피플의 모습이 지난 3월 23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에 공개되었다.
- 46 **EDITOR'S PICK** 계절이 바뀌니 자꾸만 새로운 화장품에 눈길이 간다.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뷰티 핫리스트.
- 47 **POETRY OF SCENT** "향이 하나의 단어라면, 향수는 하나의 문학이다." 자신을 가리켜 '향기를 쓰는 작가'라고 말하는 조향사가 있다. 근사하지만 언뜻 알맹이 없는 클리셰처럼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에르메스의 전속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Jean-Claude Ellena)가 만든 향수를 음미해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인물임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 48 **SWEETS IN SAINT-GERMAIN** "우리, 테라스에서 만날까?" 이 한마디에 당신은 파리 카페의 주인공이 된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만나는 네 가지 질소, 4개의 스타일, 그리고 각각 개성 있는 4개의 다른 느낌.

Style 조선일보

Issue.124 April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im@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김지혜 jhy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빛 그라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Monogram Collection.

루이 비통 패스(Louis Vuitton pass) 앱을 다운로드하면 더욱 특별한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LOUIS VUITTON



Jewel DREAM BANGLE

블름감과 아름다움, 주얼리의 화려함을 모두 갖춘 골드 밴글 컬렉션.

(위부터 아래로) 강렬한 느낌을 주는 티파니 T 스캐어 브러쉬 8백만원대 티파니, 코볼 스톤 모양으로 세팅한 레인보우 밴글 1천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버전의 루이비통 화이트 밴글 4천만원대 모두 부러본, 브랜드 로고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불가리 불가리 밴글 8백만원대 불가리, 로자사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틀라스 핸드 밴글 1천8백만원대 티파니, 골드로 양수 잔유를 감싸 그려부적으로 완성한 이클립 브러쉬 2백80만원대 타사키, 체인 링크가 정교하게 모여 있는 마이클 펠리 컬렉션 브러쉬 6천만원대 카르티에, 에디터 김지현

포토그래피 박진주



Fashion FUN HOUSE

가방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작은 디지털카메라가 쏙 들어가는 카메라 가방을 모티브로 한 제품부터 콤팩트 파우더, 플라캔, 트렁크, 피아노 2번까지, 위트와 센스를 가득 담은 웃음 유발 백 컬렉션.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여행용 트렁크에서 영감을 받은 브리드 말 클러치 숄더백, 19X12cm, 6백10만원대 루이비통, 작은 디지털카메라도 넣을 수 있는 카메라 백, 17X9cm, 1백만원대 톨 포드, 플라캔 모티브를 리얼하게 재현한 체인 백, 17X8cm, 49만원 모스카노, 레고로 만든 피아노 2번 모티브가 유·브란 클러치, 28X15cm, 1백47만원 리베르티 by 로르보, 콤팩트 모양의 이브릴 클러치, 15.5X12cm, 가격 미정 사넬, 카메라 모양으로 재현된 단클러치 백, 17.5X12cm, 23만원 DVF, 에디터 권유진

포토그래피 박진주, 스타일링리스트 유현정



Beauty HEALTHY HAIR

중성하고 탈스러운 모발은 건강한 두피에서 시작된다. 매일 머리를 빗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두피 케어 에센스에 집중 투자할 시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두피와 모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케리니스트 크로콜로스 트 피플 오일을 바를 것. 바다 해초의 성장과 불리는 에비신 성분은 손상된 두피를 진정시킨다. 부드러운 오일 텍스처로 모발에 보습력을 형성하고 향로운 장미 향이 후기를 지극한다(120ml 7만2천원대). 강황과 인삼 같은 식물 활성 성분은 두피를 건강하게 개선시키는 아베다 인비타 스킨 리 바이탈라이저는 아베다의 베스트셀러 라인인 인비타의 세 번째 단계로, 샴푸와 컨디셔너 사용 후 두피에 충분히 뿌리면 된다. 비타민 E 성분이 두피의 항산화력을 촉진하며 스킨케어 라인에 더해진(150ml 7만9천원). 민감성 두피라면 크레티비트 아스타르 프레스시 수딩 세럼으로 두피를 진정시키자. 아스테라 성분과 콜링 에센셜 오일이 두피 온도를 낮추는 제품으로, 샴푸를 한 두피에 가려왔던 두피를 잠재워준다(75ml 2만9천원). 나이가 들면 두피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노화되며 기능이 약해진다. 두피를 깨워 세정하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연마스트라스오가나 딥 스킨프 큐리피어 세럼은 발모를 예방해주는 메드 스위트 성분과 피지 조절에 효과적인 비타민 B 성분으로 두피와 모발에 활기를 부여한다(50ml 4만7천원).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머릿결이 작아지고 모발이 얇아진다는. 로레알 프 로페셔널 파리 세라모실 락 화이트 세럼은 쉘 티닌 텍스처에 담긴 항산화 성분 캡슐 알갱이가 비브는 즉시 타지면서 모발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90ml 6만2천원). 영양분은 많은 데에서 건강한 식물이 자라듯 모발도 활력이 중요하다. 모발이 자라는 환경을 최적화해주는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아메리칸 스칼프 에센스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아데나신 성분을 담았다. 두피를 가볍게 마사 지하면 제품 흡수에 효과적이다(180ml 8만8천원). 에디터 김지현

포토그래피 박진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 봄날에 활기를 더해줄 프레스티지 샴페인 3인방

나른한 봄날에 강도 높으면서도 기분 좋은 청량감을 선사해줄 주류라면 아무래도 샴페인만 한 게 없지 않을까? 샴페인 팬이 아니라더라도 가슴 살릴 만큼 매력 넘치는 '프레스티지 3인방'이 눈길을 끈다. 우선, 최근 서울쇼 와인미술관을 통해 한국에 본격적으로 선보인 브랜드 듀발 르로아(Duval-Leroy)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859년부터 고품질 샴페인데 생산자인 코트 드 블랑 지역에서 최상급 포도원을 일궈온 유서 깊은 샴페인 하우스로, 세계 70여 개국에 걸쳐 2백50여 개가 넘는 미술관 스타 레스토랑에서 취급할 만큼 인정받고 있다. 브뤼, 로제, 퀴베 MOF 등 전반적으로 빼어나지만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이 공존하는 펄드 샴페인(Femme de Champagne)은 단연 발군이다. 사르도냐에 소량의 피노 누아를 블렌딩한 이 매력적인 그랑 크뤼 샴페인은 10년 이상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이 브랜드를 이끄는 여성 수장 캐롤 듀발-르로아가 와인메이커와 함께 혼을 다해 만든 역작이라고, 4월 말 헤리톤 위크홀에서 열리는 이트 누드 쇼 '크레이지 호스에서 VIP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여성 경영자라면 시크한 이미지의 샴페인 브랜드 비브 클리코도 빼놓을 수 없다. 브랜드 창시자인 마담 클리코의 압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탄생시킨 '비브 클리코 라 그랑 당 2004'는 단아한 느낌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펄이다. 신선한 감귤류, 생선으로 만든 에피타이저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이 그랑 크뤼 샴페인은 지금부터 2025년까지 시음 작라고, 마지막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프레스티지 샴페인 브랜드 돔 페리뇽의 신제품 P2가 있다. '플레니투드(plénitudes, 절정)'의 앞글자를 딴 P를 제품명으로 내세울 만큼 강력한 자신감이 투영된 시리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P2-1998은 16년에 걸쳐 완성했다는 돔 페리뇽의 두 번째 플래니투드 강하자인 부르데는 역설적인 개성을 한껏 내세우고 있다. 에디터 고성연

돔 페리뇽



듀발 르로아

비브 클리코



Exhibition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II>展

작가의 창조적 여정을 풍요롭게도 인도 있게 담아낸 전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II>가 주목을 끈다. 고영근, 김기철, 김영나, 유근택, 한성필, 홍승명, 홍승혜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아티스트 7인의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한 전시로, 서울 안국동 사비나미술관에서 오는 6월 5일까지 열린다. "작가들은 과연 자신의 직업 세계를 어떻게 정하고 포트폴리오라는 형식으로 담아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는 이 전시는 2013년 기획해 호응을 이룬 아티스트 포트폴리오전의 두 번째 시리즈다. 아티스트의 철학과 작업 방식, 변화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방향까지 예측해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내 '사진 조각'의 원조인 고영근 작가의 부스에서는 발상과 창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사진을 큐비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미지를 재조합하는 한성필 작가의 작품 세계도 눈길을 끈다. 다분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경향이 녹아든 자신의 작업실을 소재로 한 작품 세계를 고유의 방법으로 펼쳐내는 유근택 작가의 탐구 정신은 꽤 친숙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가슴 아픈 세월호의 기억을 작품으로 승화한 홍승명 작가의 전시는 자못 신성한 감동을 준다. 또 여행자의 문구점을 방면해 영감을 얻는다는 그래픽 디자이너 김경나의 직업 과정이 담긴 스케치, 기하학적 변주로 유명한 홍승혜 작가의 20년 여정을 한데 모은 기록의 장, 소리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는 김기철 작가가 전시장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빛소리 역시 발견을 후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밖에 다양한 장르의 작가 96명의 1백20여 편 포트폴리오를 열람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리운저는 특히 유쾌한 작가의 길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발길을 꽤나 오랫동안 멈추게 할지도 모르겠다. www.saviramuseum.com 에디터 고성연



Art. SPR 18P proda.com

PRADA EYEWEAR

Ansel Elgort
London, October 2014



for him Selection

프린지부터 스웨그, 주얼 장식, 자수, 다채로운 컬러와 프린트까지, 2015 S/S 시즌은 그야말로 디테일의 전쟁이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클로저를 장식하며 카무플라주 패턴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원단이다. 핏이 넉넉한 핏이다. 20만원대 **미스앤.스.**

신축성 있는 원단으로 만들어져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대 **미스앤.스.**

신축성 있는 원단으로 만들어져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대 **미스앤.스.**

레더와 프린트 패턴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핏이다. 20만원대 **미스앤.스.**

북 카페에서 영감을 받은 타이포그래피 패턴이 돋보이는 트래블 사철 백. 47x45cm, 3백만원대 **버버리.**

알코의 스타드 장갑과 기하학적인 패턴이 눈에 띄는 하이웨이 신발. 1백20만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올림 스톤스 탄생 5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빨간색 숫자 다이얼과 포인팅인 옐로와 메트로 크로노미터 1969 원치 1천2백만원대 **제니스.**

비즈 장식으로 유년형 패턴을 표현한 데님 팬츠. 가격 미정 **미스앤.스.**

물감을 흘려놓은 듯 개성 있는 패턴의 헤드셋. 7만5천원 **어반이아스 by 소비코AV.**

올라워 프린트의 소가죽 벨트. 63만원 **자황시.**

슬림한 디자인에 트랜스퍼 레드 컬러를 단연 인기 지닌 만도못루스 아이템. 2백99만원 **만도못루스.**

메탈릭한 프레임과 미러 렌즈가 트랜스퍼 레드 컬러를 단연 인기 지닌 만도못루스 아이템. 2백99만원 **만도못루스.**

생로랑 02-6905-3924
분더샵 02-3444-3300
발렌티노 02-6905-3610
버버리 02-3485-6536
에르메스 02-544-7722
디스퀘어2 02-6905-3678
소비코AV 02-2106-2981
자황시 02-517-7560
루이 비통 02-3432-1854
미스터앤미세스 02-3479-6155
제니스 02-3438-6031
만도못루스 1566-5748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카툰 프린트의 장갑 12만원 **카툰 엔트 by 분더샵.**

HUGO BOSS KOREA LTD. Phone +82 2 2210 5100 www.hugoboss.com



BOSS

HUGO BOSS



신형인 블루 컬러의 벨트
비즈와 자수 장식이 돋보이는
2015년 봄 시즌의 히트 아이템.

플라워 모티브 브로치
21만5천원, 남게 모티브
브로치 16만5천원 모두
스외로브스키.

플라워 자수 장식이 돋보이는 다용 라마백.
29X18cm, 가격 미정 다용.
스외로브스키.

스타드 장식을
더한 선글라스
40만원대 프라다
by 루소티카
코리아.

for her Selection

올봄엔 더욱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디테일을 더한 아이템들이 당신의 옷장을 가득 채울
테니까.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플라워 프린트와 주얼
장식으로 화사함을 더한 슬링백 힐
1백19만원 **홍제인바나.**

화사하게 디자인
복합 패턴이
이탈리안 스타일
1백30만원
이탈리안바나.

화려한 꽃을 찾아가는
나비에게서 영감을 받은
베베용 핑크 골드 이어링
4백만원대 루시에.

다채로운 플라워 프린트와
피스탈루리가 신중한
비유디엔조 99만5천원 **구찌.**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를 모티브로 했으며,
골드 나비 장식을 더해 로맨틱한 감성을 지니는
신데렐라 에디션 플랫 슈즈 102만원대 **발타사.**

스외로브스키 유한정
아이스크림 이색형, '베베미'
에디션 플러진

우울해지는 일소닉
양모스트가
새로운가령
30만원대 루이
비통.

볼드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골드
밴글 79만원 **마리아 프란체스카
페페 by 분더샵.**

12시 방향에 위치한
투명 창으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레이디 하트 오토매틱
워치 95만원 **티쏘.**

비즈와 자수 장식으로
플라워 패턴을 완성한
화이트 원피스
4백18만원 **블루마린.**

버베리 02-3485-6536
스외로브스키 1661-9060
피에르 아르디 02-310-5052
다용 02-518-0277
올체안가바나 02-3444-0077
룩소티카 코리아 02-501-4436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분더샵 02-2056-1232
블루마린 02-6905-3447
마크 제임스 02-3467-8525
루시에 02-512-6914
엘리사 070-7706-4322
사벨 화인 주얼리 02-3442-0962
티쏘 02-3149-8237

진주와 카멜리아 모티브가
여성스러운 르 베르 드 사벨 링
가격 미정 **사벨 화인 주얼리.**

EMPORIO ARMANI

SWISS MADE

emporioarmaniswissmade.com - ARS 3103



the world of bespoke Services

상향 평준화되어가는 자동차 세계에서 맞춤형 요소가 담뭍 들어가는 비스포크 제품은 점점 희소해지고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희소성이야말로 비스포크 자동차를 더욱 뿌리치기 힘든 유혹의 대상으로 만든다. 하이엔드 카를 선택하는 한국인들도 예전처럼 검은색 대형 세단만 고집하는 시대는 지났다. 내·외장재료를 고를 때 취향을 반영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고, 그 연령대도 20~30대까지 아우르는 등 다양해지는 추세다. 세계 3대 명차로 불리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의 비스포크 서비스 현주소를 살펴본다.



지난해 봄 밀라노에서 만난 이탈리아 디자인계 구루 줄리오 카펠리니. 요즘 가장 흥미로운 작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는 '자동차'를 꼽았다. 주로 가구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는 그인지라 다소 의외의 대답이었는데, 알고 보니 전통 깊은 이탈리아 스포츠카 제조업체 에르미니(Ermini)가 선보인 '세이오토세이 바르케타(Seiottosei Barchetta)'라는 비스포크 자동차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탈리아어로 686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세이오토세이를 차명에 넣은 이유는 바로 이 독특하게 귀여운 디자인의 스포츠카 차체 무게가 686kg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1950년대만 해도 알파 로메오, 페라리 같은 브랜드들과 대적했을 만큼 전통과 명성을 지닌 브랜드인 만큼 카펠리니는 꽤 의미를 두는 듯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수공예 장인처럼 맞춤형으로 정성 들여 제작하는 브랜드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더구나 자동차는 설 새 없이 찍어낼 수 있는 산업화의 상징적인 품목 중 하나가 아닌가. 우리 눈앞에서 점점 맞춤형 자동차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대량 양산 체제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양산차 카테고리 내에서도 이미 충분히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치러지는 모터쇼에서 빼어난가 성비를 앞세운 신차가 물밀듯이 쏟아지는데, 어차피 자동차란 운동화나 옷처럼 자주 바꾸기도 힘든 물건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 나만의 스토리와 개성이 담긴 물건을 더 사랑한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소수지만(그리고 이틀조차도 일부 플랫폼은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스포크 요소가 담긴 제품을 제공하는 슈퍼 프리미엄 브랜드는 여전히 존재하고, 밀도 높게 사랑받고 있다. 단지 너무나 만들어내지도, 너무나 소유하지도 못할 뿐이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도 모자란, 진짜만이 명품만이 살아남는 세상인 셈이다. 아무리 3D 프린터로 원하는 물건을 찍어내는 세상이 오더라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탄탄한 기본기에, 혁신적인 기능, 그리고 감성을 자아내는 비스포크 요소까지 덧붙인 진정한 하이엔드 카를 말한다. 그렇다면 비스포크의 대명사이자 세계 3대 명차 브랜드로 꼽히는 벤틀리(Bentley)와 롤스로이스(Rolls-Royces), 마이바흐(Maybach), 이들 3인방은 요즘 각각 어떤 서비스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을까?

비스포크 자동차의 대명사, 롤스로이스

"최고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롤스로이스만 구입한다." 1912년 영국의 신문왕 노스클리프 경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을 정도로 롤스로이스는 태생부터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인식되던 브랜드다. 지금은 BMW 그룹에 속하지만 여전히 영국 국우드에 위치한 롤스로이스 본사에서 맞춤형 차를 만들어내는데, 최근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그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고가 모델인 팬텀(Phantom)의 경우 롤스로이스의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비스포크를 적용한 차량의 비중이 95%에 이를 정도라고 하며, 고스트의 경우에도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비스포크 디자인이 가미됐다고(2013년 1분기 기준). 이 프로그램은 장인과 기술자, 디자이너가 협력해 '빈 캔버스'를 채운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협업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 면면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선 팬텀 1대에 필요한 가죽 세트를 만드는 데 17일이 걸린다. 무려 4백50여 개의 가죽 조각을 사용하며 색이 가죽에 잘 스며들게 하는 '드림 다이' 공정을 거친다고 한다. 물론 고산지대의 황소 가죽만 쓴다. 목재에 대해서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팬텀 1대당 최대 42개 나무 패널이 필요한데, 차량 인테리어에 사용할 수 있는 무늬목으로는 마호가니, 오크, 엘름, 버드 아이 메이플, 월넛, 파야노 블랙 등 여섯 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특별한 목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집 앞에서 키운 나무를 잘라 패널을 만들어달라고 한 사례도 있다. 외장 페인트 색상 후보는 무려 4만4천 가지에 이르며, 역시 나만의 컬러도 가능하다. 파리의 한 여성 고객이 평소 좋아하던 사별의 핑크색 립스틱과 동일한 색상의 차량을 요구해 수개월에 걸쳐 주문 제작한 일화도 있다. 롤스로이스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비스포크 프로그램으로는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Starlight Headliner)'가 종종 꼽힌다. 차량의 천장을 1천3백40개의 광섬유 램프로 장식해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서비스인데, 자신의 별자리로도 장식할 수 있다. 이 밖에 피크닉 세트, 여행 가방 세트, 빌트인(built-in) 샴페인 클러 등도 선택할 수 있는데, 롤스로이스의 한정판 컬렉션 셀레스티얼 팬텀의 경우 남펜부르크 유리 제품으로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의 저녁'이란 테마를 엮어내기도 했다.

영국 왕실이 사랑하는 수제자 벤틀리의 물리너 서비스

벤틀리는 원래 1백 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영국 브랜드다(롤스로이스와 형제 브랜드였다). 폭스바겐이 1990년대 말 벤틀리를 인수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출중한 전략적 한 수였던 듯하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벤틀리의 행보는 눈이 부실 정도니 말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외전 차량으로 쓰이고 있으니 여전히 영국의 애정도 받고 있는 셈이다. 여왕의 차는 그녀가 평소 모자를 즐겨 쓴다는 점을 고려해 몸을 숙이지 않고도 탑승할 수 있도록 차체를 특별히 높게 제작했다고 한다. '물리너(Mulliner)'라고 불리는 벤틀리의 주문 제작 시스템은 장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유래를 보면 브랜드보다도 역사가 길다. 1760년대 영국에서 마차(coach)를 제작하던 장인 프랜시스 물리너의 후손이 자동차용 차체를 수작업으로 만든 데서 유래했기 때문이다(벤틀리는 유일무이한 차를 만들기 위해 물리너를 인수했다). 세상이 단 하나뿐인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라면 '고객이 원하는 건 뭐든 가능하다'는 게 물리너 서비스의 원칙이다. 단, 탑승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은 따르지만. 외관 페인트 색상,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가죽과 베니어 색상 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한 디자이너는 평소 사용하는 형광색을 원하기도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매니큐어와 동일한 색상을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고객이 상담하던 직원의 베틀이 색깔이 마음에 든다며 차량 색상을 똑같이 해달라고 주문한 경우도 있었죠." 벤틀리 수입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연 베틀이 일화는 어떻게 마무리됐을까? 담당 직원은 베틀이를 똑 잘라 본사에 보냈고, 벤틀리에서는 그와 동일한 색상을 차로 재현해줬다는 후문이다. 벤틀리 역시 소재 자체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인다. 인테리어용 목재는 천연 목재만 사용하는데, 천연만이 좌우대칭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목장에서 방목한 소의 가죽만 쓴다. 소가 울타리에 부딪히면 살갓에 상처가 남는다는 이유에서다. 날씨가 차가운 곳에서 자란 황소를 선호하는 것도 모기에 물린 자국이 없고 가죽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1대를 제작하는 데 3백 시간이 소요된다는 플래그십 모델 물산의 경우에는 차 1대를 위해 15마리분의 소가죽이 동원된다. 이 중 1백70시간을 인테리어 작업에 할애한다니, 그 정성을 알 만하다.

독일의 자존심 마이바흐, S클래스로 다시 태어난다

지난 2011년부터 수년간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이 아쉬워한 대상이 있다. 바로 마이바흐다. 지난해 말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최상급 모델로 부활한 마이바흐는 최근 서울모터쇼에서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더 이상 완전한 비스포크 차량은 아니지만 벤츠 S클래스와 마이바흐를 결합했다는 이 차는 최고급 세단답게 기존 S클래스보다 더욱 넓어진 실내와 고급스러워진 사양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력한 성능도 자랑하지만 비행기 1등석처럼 센터 콘솔에서 좌우 2개의 테이블을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시트와 움직임은 짐부실로 탈바꿈시키는 뒷좌석 접이식 테이블 같은 내부 사양도 인상적이다. 또 비스포크 요소를 갖춘 인테리어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은장 수제 샴페인 플라트와 냉장고를 넣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메르세데스-벤츠가 AMG라는 서브 브랜드를 통해 '수작업 엔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스포티 세단, SUV, 쿠페 등 다양한 차를 제작하는 스포츠카 브랜드인 메르세데스-AMG는 원래 작은 튜닝 회사로 출발했는데 '1인 1엔진' 철학을 반세기에 걸쳐 지켜왔다. 모든 메르세데스-AMG 엔진은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엔지니어 1명이 아팔타바흐(Affalterbach)에 위치한 AMG 퍼포먼스 스튜디오에서 엔진 전체를 책임지고 조립한다. 제작이 완료되면 담당 엔지니어의 이름을 해당 엔진에 새긴다. 게다가 AMG 퍼포먼스 스튜디오에서는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맞춤형 개별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S63 AMG 모델의 경우, 블랙 파야노나 카본 파이버 소재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일종의 비스포크형 엔진인 셈이다. 마이바흐에도 비스포크형 엔진 서비스를 적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하이엔드 자동차 브랜드들이 저마다 차별화를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또 비스포크의 요소나 느낌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보다 섬세하고 다채로워지고 있다. 감성 마케팅이 대세인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고객과의 스토리텔링을 엮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사실 그만큼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만의 감성과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는 비스포크의 면모를 지닌 브랜드들은 그러한 차별화에서는 단연 앞설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3대 명차라고 불리는 이유일 테고 말이다. **SA** **에디터 고성연**

Mystical nature

자연은 모든 주얼리 브랜드가 숭배하는 대상이다. 화려한 꽃과 나비,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 곤충과 동물까지, 주얼리로 다시 태어난 자연의 신비로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 **샤넬** 화이트 주얼리 **코메트 컬렉션 브레이슬릿** **에뛰알 팔링트** 심플한 벨 모티브와 그 주위를 둘러싼 다이아몬드 세팅이 은하수처럼 보이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6천원대, **타사키** **인벤트 드라곤플라이 키 펜던트** 블루 사파이어로 나비 모티브를 형상화한 미스터리한 느낌의 펜던트 1천7백만원대, **타사키** **대인지 트랩 네크리스** 담수 진주를 품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골드 세공수놓수놓에서 영감을 얻은 것, 타사키 특유의 독특함이 느껴진다, 2천2백만원대, **볼가리** **세르펜티 브레이**

슬릿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머더오브밀을 번갈아 장식한 환상적인 벨 모티브 브레이슬릿, 8천만원대, **부쉐** **드림 사파이어 링** 영롱한 빛을 발하는 8.29캐럿 사파이어를 68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아름답게 감싼 하이 주얼리 링 가격 미정, **부쉐** **보헤미안 골드 원 헤드 라지 링** 손가락을 감싸는 유혹적인 벨의 자태를 아름답게 묘사한 다이아몬드 링, 3천만원대, **까르띠에** **나뽀 레안** **라브 비드 모티브 브레이슬릿** 두 마리 새가 하나의 브레이슬릿에 있어 주는 예술적인 디자인의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샤넬** **화**

인 주얼리 **1932 컬렉션 루반 링** 다이아몬드를 패브릭처럼 정교하게 세팅해 리본을 완성한 볼드 링 가격 미정, **타사키** **옐로 다이아몬드 오벌 링** 따뜻한 햇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옐로 다이아몬드 세팅한 링 1,157캐럿 기준 4천5백만원대, **타사키** **다이아몬드 링** 플라타르에 꽃잎을 표현한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천만원대, **볼가리** **사파이어 플러워 컬렉션** 링 지중해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꽃을 완성한 링, 에미스스트, 블루 토포즈, 페리드트, 루베라이트를 세팅했다, 2천만원대, **부쉐** **수블리 링** 8.81캐

럿 핑크 카보숑 퀴츠를 안고 있는 사자 모티브 링, 눈을 그린 컬러 에메랄드로 장식했다, 5천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1932 컬렉션** **플로어 링** 3개의 깃털 모티브가 0.52캐럿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이 주얼리 링 9천만원대, **에디터** **베미진**
타사키 02-3461-5558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부쉐 02-3213-2246 **타사키** 02-547-9488 **볼가리** 02-2056-0172 **까르띠에** 1566-7277



Brioni

HYATT HOTEL B1 SHILLA HOTEL B1 GALLERIA LUXURY HALL EAST 4F
 SHINSEGAE MAIN 6F HYUNDAI MAIN 4F AVENUE WORLD TOWER 4F

BRIONI.COM

ultimate Drama

올해 SIHH와 바젤 월드에서는 진보된 기술력과 미학적 완성도를 모두 갖춘 기계식 여성 워치가 대거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예쁘기만 하던 여성 워치에 남성의 전유물인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더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워치 브랜드가 여성 워치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 여기,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아름다운 기계식 워치를 모두 모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랑팡 우먼 크로노그래프 그랜드 데이브** 영롱한 자개 다이얼에 우아한 곡선을 따라 가지런히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여성의 섬세한 감성을 자극하고, 인허우스 칼리버 26F8G를 탑재해 기계식 여성 워치의 지평선을 그려내는 컬렉션. 12시 방향에 로마숫자로 표기된 시간 인덱스가 사브 다이얼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이얼 가장자리에는 이븐비숫자의 분 인덱스를, 3시와 9시 방향에는 크로노그래프 창을 배치해 시선을 끄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5천1백만원대. 문의 02-6905-3367

파르미자니 필싱 002 아스타리아 독보적인 자사 무브먼트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예술적인 여성 워치로 승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모델. 이탈리아의 역사적 오트 제 조사 필싱과 협업해 완성한 이 시계는 바다의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블루 컬러 자개 다이얼과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기계식 워치의 면모를 한껏 드러낸다. 자사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3시 방향에 자리한 불가피 모양의 스몰 세컨즈가 시각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5천만원대. 문의 02-310-1737

브라세 클래식 3358BB 루이 브라제가 최초로 발명한 투르비용을 모티브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러닝 세컨즈와 핸드오인딩 무브먼트, 그리고 브레게 고유의 전통과 스타일을 대변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인 브랜드의 대표 여성 워치. 6시 방향에 그대로 노출된 투르비용은 브라제의 미적 감각과 기술력을 이루며 시계의 가치를 높인다. 1억원대. 문의 02-3438-6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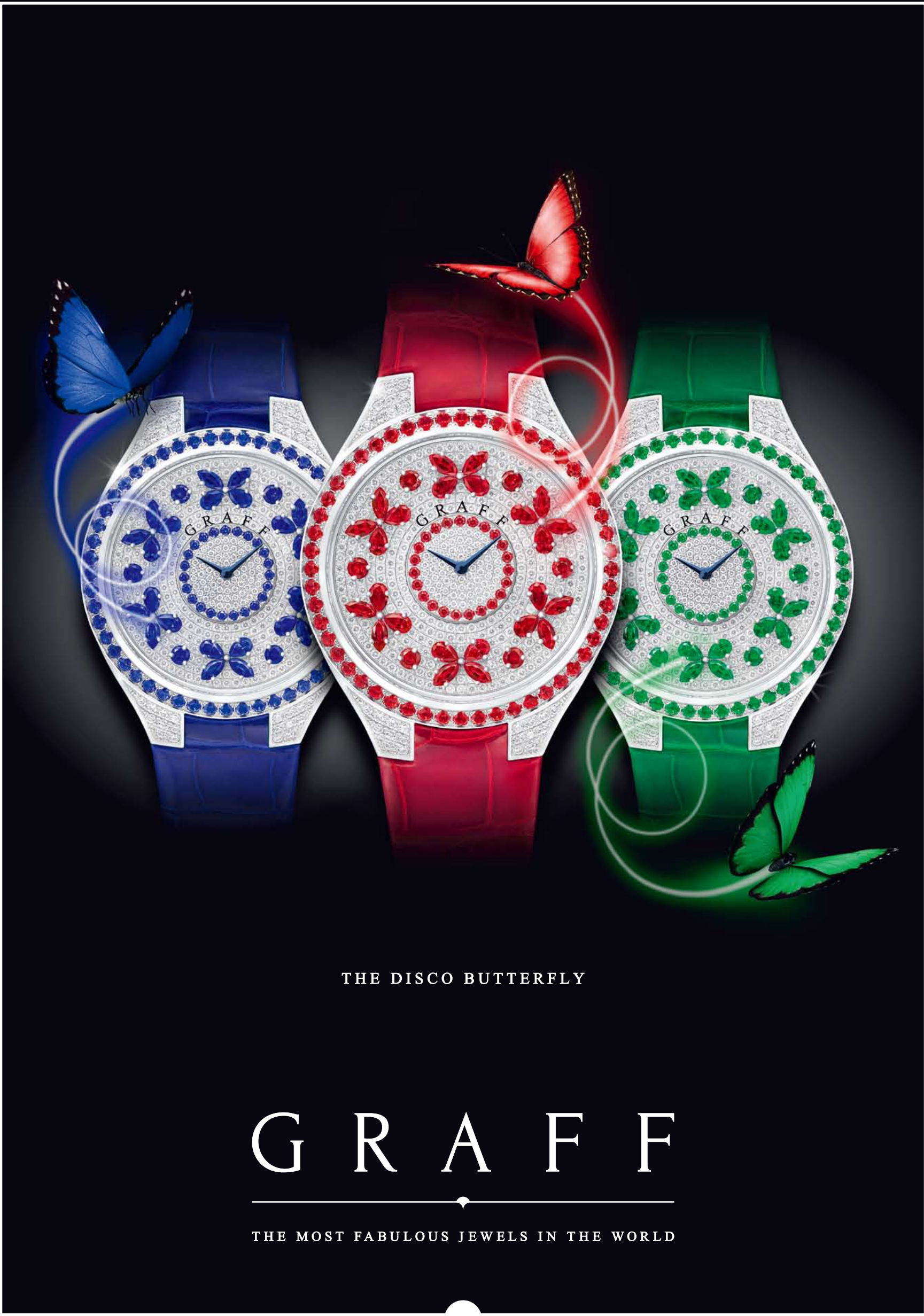
에르 르클레르 망데부 투르비용 나인 앤 데이 에르 르클레르를 대표하는 여성 워치인 망데부 컬렉션의 투르비용 모델. 이븐비숫자 인덱스는 손스럽지는 편견을 과감히 버리게 할 만큼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숫자 인덱스가 상징인 시계다. 6시 방향에서 신비롭게 움직이는 투르비용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는 2009년 크로노메트리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임을 입증한 결과물이다. 이와 함께 12시 방향에 눈과 빔을 표시하는

나이트 & 데이 인디케이터를 더했으며, 총 2.45캐럿에 달하는 1백25개의 다이아몬드를 베젤을 따라 세팅해 기쁨 있고 화려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1억원대. 문의 02-6905-3998

파이제 엔드리스 투르비용 관행과 사치성을 성숙하게 결합한 클래식한 케이스 디자인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표 컬렉션 엔드리스를 하이 주얼리 여성 워치로 재해석한 투르비용 모델.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투르비용 무브먼트 600P를 장착했다. 무려 2백71개의 브리얼리엔트 컷 다이아몬드와 57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매개-나일 무브먼트와 더불어 주얼 시계의 정수를 여실히 보여준다. 12시 방향에는 플라잉 투르비용을, 6시 방향에는 파워 리저브 게이지를 장착했다. 3억원대. 문의 02-3467-8924

바세롤 콘스탄틴 트레다시엔 오픈워크 스몰 경이로운 만큼 정교하게 완성한 스텝케톤 무브먼트가 돋보이는 여성 워치. 시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골자만 남겨둔 스텝케톤 무브먼트에 이르면 누보 모티브를 오픈워크 기법으로 성숙하게 세겨 워치메이커의 장인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18K 화이트 골드 인덱스와 도관형 핸즈를 갖춘 투명한 사파이어 다이얼을 통해 무브먼트의 아름다움과 정교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독보적인 매력이다. 이렇듯 30mm 케이스의 베젤에 총 64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발산한다. 7천만원대. 문의 02-3449-5930

오메가 마스터 플래닛 오션 세라클드 화이트 플래닛 세인트 모리츠 스위스 세인트 모리츠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볼스레이 대회에서 이름을 따온 워치 컬렉션. 고유의 스포티한 디자인에 18K 레드 골드 케이스와 화이트 세라믹 베젤, 화이트 가죽 스트랩으로 여성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코-액시얼 칼리버 0521과 18K 레드 골드의 로터, 밸런스 브리지를 적용했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 케이스를 통해 이 우수한 기계식 무브먼트를 확인할 수 있다. SI-14 살리크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해 4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2천9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에디터 권유진



THE DISCO BUTTERFLY

GRAF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Light steps

비즈니스 캐주얼이 보편화되면서 편안한 신발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완벽한 착용감, 드레스 슈즈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멋스러운 디자인, 가벼운 무게까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슈즈는 바로 이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견고한 송아지 가죽에 바닥과 연결된 딥 그린 컬러 라바솔 장식이 특징인 스파클라토 로이스 로퍼, 착용감이 좋은 고무 밑창으로 마무리해 일반적인 로퍼보다 스포티한 것이 특징이다. 90만원대 **프라다**. 문의 02-3218-5331

블랙 컬러 라인이 돋보이는 베이시한 디자인의 화이트 스니커즈. 겨울 동안 어두운 컬러의 운동화만 고집했던 남성이라면 화이트 스니커즈를 장만에 경험할 스타일로 번신해볼 것. 75만원 **발리**, 문의 02-3467-8935

베이지, 브라운, 다크 브라운 등 세 가지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가 발등을 부드럽게 감싸는 이리진나 모카신. 신발을 신지 않은 듯 가벼워 오래 걸어도 불편하지 않다. 88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발등을 구멍이 뚫려 있어 한눈에도 편안해 보이는 플린 슬림은, 더운 날씨에도 발에 땀이 차지 않아 쾌적한 7분을 느낄 수 있다. 27만원 **에코**, 문의 031-628-4800

시원한 컬러와 이국적인 패턴이 눈길을 사로잡는 고미노 드라이빙 슈즈. 토츠 하면 드라이빙 슈즈가 떠오를 정도로 옷 좀 입는 남자들이라면 하나씩은 소장하고 있는 신발이다. 60만원대 **토츠**, 문의 02-3438-6008

발등을 장식한 3개의 X 밴드 디자인이 인상적인 더 트라를 엑스 스니커즈. 모던한 디자인과 화이트·그레이 컬러의 조화가 고급스럽다. 89만원 **에르메시빌도 제나 꾸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문의 02-518-0285

반타지한 블루 컬러와 고무 밑창으로 마무리한 보트 슈즈. 한 뼨 한 뼨 장인의 손길을 거쳐 완성하는 브랜드답게 캐주얼한 보트 슈즈에서도 클래식함이 느껴진다. 1백30만원 **벨루티**, 문의 02-547-1895 에디터 권유진, 김지혜

스타일리스트 유환영, 이나스틴 이서영, 박재미

www.hamiltonwatch.com



INTO THE DREAM



RAILROAD AUTO CHRONO
AUTOMATIC SWISS MADE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HR PASSION 롯데월드몰점 코엑스몰점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센터시티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센텀시티점 영동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라자 구로본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충청점 김해점 디큐브시티 신도림점 거제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 BUSAN SHILLA DFS SEOUL INCHEON AIRPORT JEJU WALKERHILL DFS

Candy shoes

섹시할 것만 같던 스틸레토 힐이 민트, 베이비 핑크, 파플 등 사랑스러운 컬러의 옷을 입고 반전 매력을 피한다. 외출 전 오늘은 뭘 신을까, 고민된다면 숨사탕처럼 달콤해진 새로운 매력의 스틸레토 힐을 주목해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아래로) 청량감이 느껴지는 상큼한 민트 컬러의 소가죽 페이턴트 슈즈, 민트 컬러와 대비되는 레드 컬러 가죽 밑창이 뒷모습을 색사하게 만들어준다. 97만원 **크리스찬 루브랭**, 문의 02-6905-3795

알코의 골드 스타드 장식이 특징인 펌프스, 자칫 강해 보일 수 있는 스타드 장식이 차분한 스카이 블루 컬러의 영소가죽과 조화를 이뤄 우아하게 변신했다. 75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카롱 소재의 그레이 컬러 스틸레토 힐, 올림 종류 중 하나인 카롱가죽을 사용해 부드럽고 매끄러운 가죽의 질감을 제대로 실렸다. 디테일 없이 소재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풍긴다. 1백65만원 **디올**, 문의 02-518-0277

베이지 컬러의 페이턴트 소재와 구두 뒷면의 골드 장식이 특징인 펌프스, 스킨 컬러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백10만원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개미처럼 밝은 옐로 컬러의 소가죽 스틸레토 힐, 매끈한 라인이 여성미를 극대화하고 캔디처럼 달콤한 컬러가 발끝에도 붙어 온 듯한 느낌을 준다. 92만원 **세르지오 로시**, 문의 02-6905-3740

통통 튀는 파플 컬러가 시선을 사로잡는 스웨이드 펌프스, 컬러별로 모두 소장하고 싶은 마블로 블라누의 기본 라인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1백5만원 **마블로 블라누**, 문의 02-3443-2113

베이비 핑크 컬러와 골드 컬러의 굽이 세련된 스틸레토 힐, 톱 포드의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아낌없이 발휘한 굽에 반영했다. 1백10만원 **톱 포드**, 문의 02-6905-3640 에디터 권유진, 김지혜

스타일링: 유영민, 이나영, 박재미

GALLERIA WEST
SHINSEGAE MAIN
SHINSEGAE CENTUM
SHINSEGAE YOUNGDEUNGPO
LOTTE INCHEON
GALLERIA TIMEWORLD
DVF.COM



DV
DIANE VON FURSTENBERG



Art of living

1920년대부터 집이라는 공간에서 창조의 영감을 받아온 에르메스는 다채롭고 풍부한 홈 컬렉션을 출시하며 집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최고급 소재와 엄격한 공정, 간결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견고한 디자인은 에르메스 홈 컬렉션만의 최대 강점이다. 모든 이유를 다 떠나 에르메스가 꾸민 집이라니,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은가.

생명력 넘치는 에르메스 홈 컬렉션

신사동 도산공원 앞에는 그곳의 풍경을 고급스럽게 그려내며 상징적으로 자리 잡은 6층 높이의 금빛 건물, 에르메스 매점 도산파크가 있다. 혹자는 이곳을 지나면서 '저 큰 건물이 다 기둥으로 채워져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통 '에르메스' 하면 전세계 여성의 우시 리스트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버킨 백이 먼저 연상되니 말이다. 하지만 이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디채르와 함께 그려 보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이 되는 아름다운 홈 컬렉션이 274㎡의 3층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에르메스에서 인력한 소파와 의자, 아름다운 조명, 각종 테이블웨어를 선보인다는 사실을 이 글을 보고 처음 알게 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에르메스가 패션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열정이 크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인생의 즐거움과 일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추구해온 에르메스가 집에 주목한 것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에르메스 카탈로그를 가득 채운 아름다운 사무용품과 레저 아이템은 에르메스가 토털 홈 컬렉션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수십 년 후에 테이블웨어와 텍스타일을 홈 컬렉션에 처음 추가했고, 2010년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집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탄생시킨 가구와 패브릭, 벽지가 그 뒤를 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2년엔 다양한 조합으로 벽면과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해줄 모듈 아수, 에르메스를 대변하는 최고급 소재를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한 가구 컬렉션 레 네세샤에르 데르메스까지 선보이며 더욱 풍부한 홈 컬렉션을 완성했다. 에르메스만의 우아함과 독보적인 창조성,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장인 정신이 빛어낸 아름다운 선물로, 이는 진정한 아트 오브 리빙(Art of Living), 즉 집의 예술을 실현한다.

세계적인 거장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가구 컬렉션

에르메스 홈 컬렉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가구 컬렉션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대단이 될 수 있다. 에르메스 홈을 대표하는 가구 컬렉션을 펴낸 단연 2010년에 론칭한 장-미셸 프랑크(Jean-Michel Frank, 1895~1941) 리에디션 시리즈다. 1920년대에 활동한 장식미술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장-미셸 프랑크는 당대의 장식미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에르메스 가문의 4대손 장-크레 케랑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운명적인 만남은 90년의 세월이 흐른 현대에 이르러 리에디션 시리즈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진정한 미니멀리즘의 선구자인 장-미셸 프랑크의 디자인 모토를 그대로 이어받아 불필요한 걸치테를 없애고 순수함과 심플한 미학에 비중을 두는 것이 이 컬렉션의 주요 콘셉트다. 에르메스 가족 장인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장인이 직접 고른 최고급 가죽과 새들 스티치는 리에디션 시리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상세한 디테일이다. 이는 에르메스에서 독점 출시하며 모든 제품에 고유 에디션 번호와 프랑크의 사인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현존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엔조 마리(Enzo Mari), 안토니오 차테리오(Antonio Citterio), 드니 몽텔(Denis Montel), 에릭 벵케(Eric Benque)가 디자인한 가구 컬렉션 역시 에르메스 가구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현재 가장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에르메스를 통해 상품화되어 우리 집 거실에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 아닌가. 최고급 송아지기죽으로 부드럽게 마감한 디자이너 엔조 마리의 스피노 테이블과 작은 스톨, 건축가 안토니오 차테리오가 창조한, 스테인리스 스틸에 회색 오크, 클레망 황소가죽, 패브릭을 매치한 독서용 의자와 침대용 의자, 그리고 사무실이나 침실, 식당 등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RDAl (르나 뒤마 건축 사무소) 총괄 디렉터 드니 몽텔과 디자이너 에릭 벵케가 제작한 셀리에 체어는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에르메스는 토털 홈 컬렉션을 론칭하면서 인테리어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고 오브제에서 가구에 이르기까지 공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탄생한 모듈 아수(Module H)는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안한 건축학적 모듈 시스템이다. 이는 건축가 시게루 반과 협업해 완성한 가벼운 모듈식 구조물로, 스크린이나 파티션처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90cm 크기의 정사각형 모듈을 기초로 작업했는데, 이는 기하학적인 조합을 만들어내며 구조물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모듈은 에르메스의 전통적인 케이스 제작 방식으로 작업했으며, 다양한 컬러, 소재, 기하학적인 형태로 선보여 무수히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듈 아수가 벽면 장식 예술의 새로운 정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실용적인 가구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독창적인 형태, 놀라게도 잘 숨겨진 기능, 에르메스의 전통을 살기키는 고급스러운 소재 등을 통해 캐주얼하고 우아함을 풍기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프랑스 디자이너 필리포 니그로(Philippe Nigro)는 본인이 에르메스를 위해 디자인한 빌렛 행어, 옷장, 체어 등 8개의 작품을 이렇게 소개한다. 프랑스어로 '필수 아이템을 의미하는 'necessaires'라는 단어를 쓴 레 네세샤에르 데르메스(Les Necessaires d'Hermès)는 깔끔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생활 가구에 수납공간이 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가 숨어 있기도 하고, 슬라이딩으로 디자인하는 등 편리함과 실용을 모두 충족시킨다.

일상의 즐거움이 묻어나는 가구와 빛의 예술을 더한 조명 컬렉션

디채르와 에르메스 가구 컬렉션을 더욱 빛내줄 조명 컬렉션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미켈레 데 루키(Michele de Lucchi)가 만든 팡토그라프(Pantographe)와 아르네(Harnais), 프랑스 비주얼 아티스트 얀 케르살레(Yann Kersalé)가 디자인한 에르메스 램프(La Lanterne d'Hermès)가 대표적이다. 에르메스의 총괄 아티스트 디렉터 피에르 알렉시 뒤마(Pierre Alexis Dumas)는 '빛이 없다면 장인의 작업도 존재할 수 없겠죠. 빛은 그 자체로는 만질 수 없지만 다른 모든 것에 형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라고 설명한다. 웰빙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고 이와 공존하는 것, 그리고 타임리스한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이 리드미컬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에르메스 가구 꾸미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다. 에르메스의 모든 홈 컬렉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매점 에르메스 도산파크에 선풍 들어가는 것을 추천할 수도 있지만,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에르메스가 추구하는 DNA와 삶의 풍요로움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에 가구나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축하는 느낌으로 꼭 한번 가보길 추천한다. 그리고 인테리어와 가구의 시조를 꿰뚫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동안 꿈꿔온 집의 모습과 취향을 만족시킬 만한 제품을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문의 02-542-6622 에디터 권유진



Titleist
Est. 1935
PREMIUM COLLECTION



**Handcrafted Elegance
Limited Edition
Performance Heritage**

프리미엄 컬렉션은 타이틀리스트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계승한 특별한 골프 컬렉션입니다. 최상급 나파 가죽과 자카드 패브릭을 사용하고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제작한 핸드크래프트 라인입니다.

EST1935.TITLEIST.CO.KR

서울 타이틀리스트 브랜드스토어 강남도산로점 02-3443-2241 | 경기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센터 031-8060-6200 | 타이틀리스트 브랜드스토어 평촌점 031-424-0014
신세벽화점 경기점 031-695-1844 | 대전 타이틀리스트 브랜드스토어 대전노은점 042-823-0003 | 대구 타이틀리스트 브랜드스토어 대구봉무점 053-986-0732
경북 타이틀리스트 브랜드스토어 구미점 054-462-7788 | 전북 타이틀리스트 브랜드스토어 군산점 063-465-4530

두 개의 골프장을 오롯이 담아내다

바람이 찾아 드는 언덕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 올려
앞으로는 용평G.C., 뒤로는 버치힐G.C.의 조망이 가능한 곳
대관령의 깨끗한 바람과 자작나무가 전하는 맑디 맑은 산소 테라피까지
용평리조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Birch Hill Terrace Residence입니다

극히 소수의 선택되신 분들을 모십니다.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회원모집문의 02.3270.1137



Yellow splend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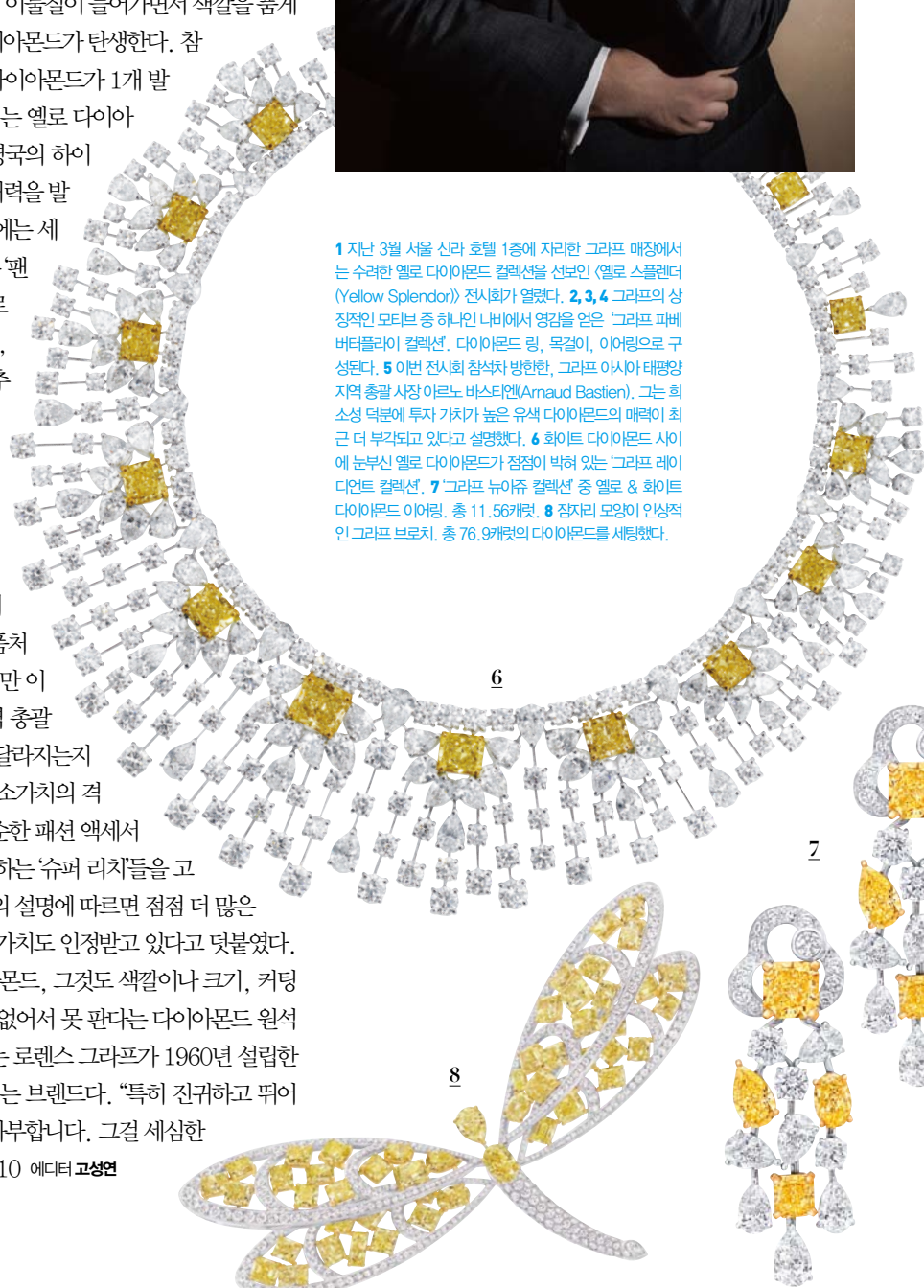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캐럿, 커팅, 컬러, 클러, 커팅의 4C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상식처럼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화이트가 아니라 희소성 면에서 더 절하기 힘든 컬러 다이아몬드라면 어떨까? 색상, 색조, 순도 등 보다 더 섬세한 잣대를 들이댄다.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는 봄이라는 계절과 몹시도 잘 어울리는 진기한 옐로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어떤 잣대로 평가해도 최고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유색 다이아몬드의 진수를 보여줬다.

봄바람 타고 온 옐로 다이아몬드, 자연의 아름다운 돌연변이

전혀 의도치 않은 실수인지 모르지만 자연은 가끔 경탄할 만한 돌연변이를 빚어내는 경우가 있다. 컬러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 같은 우연으로 잉태되는 희소한 원석이다. 다이아몬드란 기본적으로 탄소 덩어리인데,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색깔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물질이 질소라면 따뜻한 봄기운과 경쾌한 양상봉을 이루는 옐로 다이아몬드가 탄생한다. 참으로 반가운 돌연변이가 아닐 수 없다. 컬러리스(colorless) 다이아몬드 1만 개당 옐로 다이아몬드가 1개 발견된다니 그럴 법도 하다. 지난 3월 초 마치 봄의 귀환을 축하하듯 눈부신 색채를 뽐내는 옐로 다이아몬드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다이아몬드의 명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하는 영국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Graff)가 서울 신라 호텔에 자리 잡은 그라프 샵에서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다채로운 옐로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 것이다. 그중에는 세계적 보석 감정 기관 GIA의 컬러 다이아몬드 등급 체계 중 현존하는 최상급에 속한다는 펜시 비비드(Fancy Vivid)로 인정받은 제품도 포함돼 있다(흔히 카나리로 불리는 짙은 옐로를 띠면 일단 상위 등급인 펜시 계열에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펜시 라이트, 펜시 인텐스, 펜시 비비드, 펜시 다크 순으로 등급이 나뉜다. 노랑나비가 손가락 위에서 나풀나풀 춤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반지, 잠자리 모양의 76.9캐럿짜리 브로치, 화이트와 옐로를 합쳐 모두 1백 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를 동원해 빚어낸 목걸이 등 온통 세련되고 은은한 옐로의 광채가 넘실거렸다.

희소성 높은 컬러 다이아몬드는 예술 작품 같은 최상의 투자 상품

"빛깔과 광채가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진정으로 중점을 뒀어야 할 건 투자 가치를 높이는 희소성이예요. 최상의 품질과 희소성을 자랑하는 하이 주얼리는 장신구가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게다가 일생의 첫 다이아몬드라면 대부분 화이트를 선택하겠지만 이미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라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 아르노 바스티엔은 옐로 다이아몬드라도 색깔의 감도에 따라 얼마나 그 매력도가 달라지는지 일일이 보여주며 컬러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파카스 같은 예술 작품에 빗대 표현했다. 희소가치의 격이 다른 최상급 다이아몬드는 대대손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 대상이기에 절대로 단순한 패션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는 누누이 강조했다. 실제로 그라프는 투자 대상에 예의 주시하는 '슈퍼 리치들'을 고객으로 두고 수십, 수백억원짜리 하이 주얼리를 다뤄온 브랜드다. 아르노 바스티엔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컬러 다이아몬드의 진가를 알아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라프라는 브랜드의 희소가치도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뭔가 그리 다르길래?"라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수십 캐럿을 훌쩍 넘는 유색 다이아몬드, 그것도 색깔이나 크기, 커팅이 남다른 원석을 대량으로 보유한 브랜드 자체가 드물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남들은 없어서 못 판다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조달하는 역량 자체가 다르다는 자랑 섞인 설명이다. 다이아몬드의 양으로 일컬어지는 로렌스 그라프가 1960년 설립한 그라프는 대규모 광산까지 거느린,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생산업자로 꼽히는 브랜드다. "특히 진귀하고 뛰어난 옐로 다이아몬드라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로렌스 그라프의 손을 가장 많이 거쳤다고 자부합니다. 그걸 세심한 수제 공정으로 '작품'으로 승화하는 디자인 작업은 또 다른 궁지고요." 문의 02-2256-6810 에디터 고성연



1 지난 3월 서울 신라 호텔 1층에 자리한 그라프 매장에서는 수려한 옐로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선보인 '옐로 스피엔더(Yellow Splendor)' 전시회가 열렸다. 2, 3, 4 그라프의 상징적인 모티브 중 하나인 나비에서 영감을 얻은 그라프 파베 버치힐리 컬렉션. 다이아몬드 링, 목걸이, 이어링으로 구성된다. 5 이번 전시회 참석자 발간한, 그라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 아르노 바스티엔(Arnaud Bastien). 그는 희소성 덕분에 투자 가치가 높은 유색 다이아몬드의 매력에 최근 더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 화이트 다이아몬드 사이에 눈부신 옐로 다이아몬드가 정점이 박혀 있는 그라프 레이아웃 컬렉션. 7 그라프 뉴아주 컬렉션 중 옐로 & 화이트 다이아몬드 이어링. 총 11.56캐럿. 8 잠자리 모양이 인상적인 그라프 브로치. 총 76.9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Dream Ocea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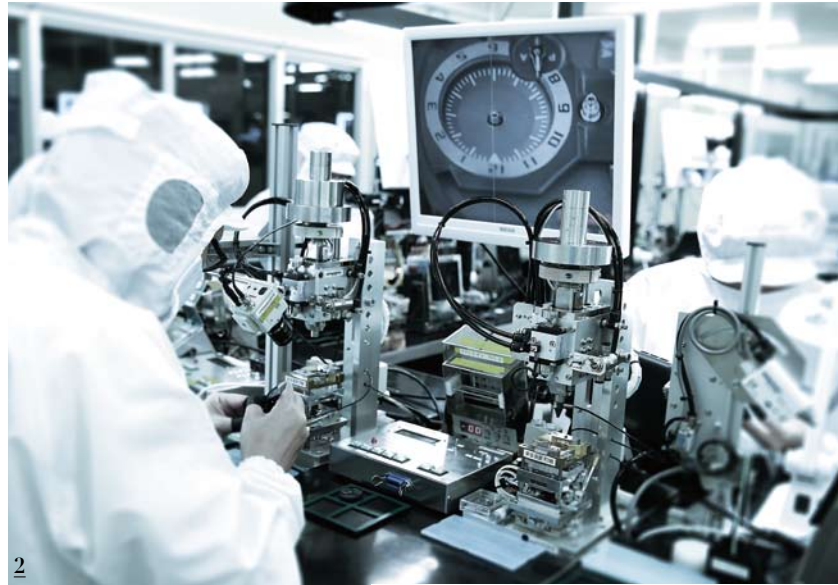
이제 해외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손수 맞출 필요가 없다. 카시오가 세계 최초로 전파 수신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전파 시계 오서너스 OCW-G1000을 출시한 것. 단순한 전자시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국내는 물론 현재 머물고 있는 나라의 시간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스마트한가.

공학의 기적으로 세계 최초의 기록을 써 내려간 카시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와 카시오는 불가분의 관계다. 일본 종합 전자 기기 브랜드인 카시오는 최첨단 전자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시킨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다. 계산기나 정밀 기구의 개발 등 언제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브랜드인 만큼 시계 분야 진출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리고 1974년 카시오는 시계 분야 진출이라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과제에 도전했다. 카시오 최초의 손목시계 카시오톨론(Casiotron)은 세계 최초로 풀 오토 캘린더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시계로, 출시 당시 화제를 모았고, 이후 최첨단 전자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시계를 개발해 젊은 세대에까지 폭넓게 어필했다. 이후 1983년에 발표한 강인한 인상의 필드형 위치 지삭(G-Shock)으로 일대 붐을 일으키고, 1995년에 발표한 프로트렉(Protrek)으로 아웃도어 마니아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는 등 시계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했다. 또 2004년에 출시한 오서너스(Oceanus)와 2009년에 출시한 에디피스(Edifice)와 같은 세컨드 브랜드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오서너스 위치

그리고 지난 2014년, 카시오는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한 번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시계를 선보였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서너스 OCW-G1000. 2004년에 출시된 오서너스는 2014년, 출시 1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아 카시오의 정밀하고 탁월한 기술력을 통해 또 한 번 진화했다. 카시오는 2014년 9월에는 자사에서 같은 방식의 하이브리드 GPS 전파 수신 기능을 더한 GPW-1000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인 오서너스 OCW-G1000 시계는 세계 최초로 GPS 전파와 표준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풀 메탈 하이브리드 전파 시계로, GPS 위성 전파와 표준 전파(멀티 밴드 6) 두 가지 방식으로 시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호 보완 시스템을 적용했다. 즉 표준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곳이라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어디서나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서너스 OCW-G1000에 적용한 위성 전파 수신 방식은 미국에서 운영하는 약 30개의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수신해 현재 시간을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머물고 있는 국가의 서버타임까지 자동으로 설정된다. 뿐만 아니라 두 도시의 시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듀얼 다이얼 월드 타임 기능을 갖추고 전지 교환의 번거로움 없앤 솔라 배터리를 적용해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했다.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티타늄 소재의 풀 메탈 보디다. 금속을 통과하지 못하는 전파의 특성에 착안해 티타늄과 고감도 안테나를 활용함으로써 전파를 원활하



1.5 위성 신호를 통해 시간을 표기하는 놀라운 기능을 탑재한 카시오 오서너스 OCW-G1000. 티타늄 소재의 풀 메탈 보디로만 볼 수 있다. 2.4정밀한 기술력으로 시계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카시오의 연구소 풍경. 3. 비행기에서 내려 별도로 시간을 맞출 필요 없이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현지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게 수신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티타늄은 비행기에도 사용할 만큼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과 흡입에도 비교적 강하다. 오서너스 OCW-G1000의 출시는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차가 있는 나라에서 시계의 시간을 새로 맞추는 일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휴여 시간을 잘못 맞춰 스케줄에 착오가 생긴다면 중요한 비즈니스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으니 말이다. 카시오의 오서너스 OCW-G1000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각지에서 꿈을 펼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시계 그 이상의 기능을 선사할 것이다. 문의 02-3143-3011 에디터 배미진

MY PORTABLE PORTFOLIO

감각적인 디자인과 환상적인 속도의 만남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세련된 포터블 SSD를 경험해 보세요!

삼성 포터블 SSD T1

samsung.com/T1



Something Special

남자와 여자, 위트와 시크, 트렌드와 클래식
을 넘나드는 맥 & 스타일링 가이드.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남) 오렌지 컬러 재킷, 화이트 데님 재킷, 브라운 팬츠 모두 **버버리 프로섬**, 알티글러 스니커즈, 에메랄드 컬러 바킷 헤트 모두 **버버리**.
(여) 다크 그린 컬러 누백 필드 재킷, 퍼플 샷츠 모두 **버버리 프로섬**, 폴리코트 스커트 **셀린노**, 오렌지 톤 그래피티 블롬스버리 미디엄 토트백, 그레이 컬러 블롬스버리 미니 토트백, 화이트와 그린 컬러 스니커즈 모두 **버버리**, 골드 스타드 장식 화이트 레더 백 **에르메스**, 그린 컬러 선글라스 **트리티**, 이어링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남) 네이비 체크 재킷 **브리오니**, 도트 패턴 셔츠와 팬츠 모두 **진조 옴므**, 네이비 샌들 **랑방**.
(여) 자카드 장식 탑, 베이지 컬러 스커트, 니삭스, 패턴 사각 클러치, 브라운 소가죽 파피어드 백, 블랙 라인우드 힐, 레드 포인트 이어링 모두 **프라다**.





(여) 주얼 장식 슬리브리스 톱 랍프 로렌, 베이지 컬러 패턴 튜브들과 팬츠 모두 스텔라 매카트니, 그린 컬러 플럼 커버 백, 사야니 파이론 스킨 플럼 커버 백 모두 불가리, 볼드한 아커크 피버리쉬, (남) 짙은 그린 컬러 재킷, 파케 셔츠, 브라운 팬츠 모두 에르메네제일로 제나 구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남) 그린 체크 셔츠, 브라운 컬러 니트 베스트, 대담 팬츠, 블랙 샌들 모두 프라다, (여) 그린 컬러 레더 원피스, 클라치로 든 숄더백, 브라운 숄더백 모두 구찌, 블랙 스트랩 힐 에르메스.



(여) 블랙 & 화이트 원피스, 스퀘어 장식 에이프린 레드 원피스, 레드 롱부츠 모두 **자방시 by 리카르도 타시**, 멀티컬러 블랙 토트백 **아이그너**, 오렌지 미니 토트백 **토즈**, (남) 세틴 라펠을 더한 블랙 재킷 **플레연가바나**, 플리워 패턴 셔츠, 에이프린 스커트, 쇼츠 모두 **자방시 by 리카르도 타시**, 블랙 스니커즈 **릭 오웬스**, 미러 선글라스 **트리티**.



(남) 체크 패턴의 퍼플 코트, 그레이 슬리브리스, 와인 컬러 팬츠 모두 **페라가모**, 스웨이드 소재 베이저 샌들 **에르메스**, 브라운 빅 토트백 **루이 비통**, (여) 스트라이프 레드 재킷 **루이 비통**, 화이트 롱 드레스 **페라가모**, 어깨에 맨 포켓 마스크 **술다백**, 블랙 컬러의 도라 소프트 모노그램 **인프라루즈 토트백**, 레드 컬러 라미 토트백, 앵클 부츠 모두 **루이 비통**, 원손에 낀 골드 서클링, 주얼 장식 골드 링 모두 **토즈**.





(남) 스트라이프 패턴 그레이 슈트,
베이지 컬러 셔츠, 핑크 레이아웃
슈즈 모두 보테가 베네타.
(여) 핑크 컬러 체크 원피스와 같은
패턴의 카디건 모두 보테가 베네타.
메이틴트 소재 로퍼 프라다.
체인 네크리스 에르메스, 옐로 미니
클러처, 베이지 토트백 모두 델보.
원손에 착용한 크리스탈 링,
실버 주얼 장식 링 모두 미네타니.

(여) 플라워 패턴 미니 원피스,
블루 피카부 토트백, 마이크로 미니
피카부 백 모두 펜디. 네이비 와이드
팬츠, 화이트 슈즈 모두 셀린느.
아까에 멘 실버 솔더백 지방시.
골드 앵글 토츠, 주얼 장식 실버
이어커프 피버리쉬 엔 너티.
(남) 핑킹 컬러 정파, 기하학 패턴
셔츠, 네이비 팬츠 모두 루이 비통.
화이트 스니커즈 프라다.

헤어 조영재
메이크업 박이화
모델 강소영, 박성진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김혜민, 진성훈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에르메네집도 제나 02-511-0285
랄프 로렌 02-545-8200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불가리 02-2056-0172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 비통 02-3444-1727
토츠 02-3438-6008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3
프라다 02-3218-5331
델보 02-3449-5916
버버리 버버리 프로섬 02-3485-6583
미네타니 02-3443-4164
셀린느 02-3213-2298
트리티 02-3446-8556
펜디 02-2056-9023
지방시 02-6905-3664
올채앤가바나 02-3444-0077
릭 오웬스 02-516-2217
아이그너 02-531-2173
브리오니 02-6905-3760
겐조 음모 02-3213-2340
랑방 02-3438-6186
구찌 1577-1921
페라가모 02-2140-9642
피버리쉬 피버리쉬 엔 너티
02-532-3041

double Life

실용적인 소재와 매력 가득한 스타일링, 캐주얼하면서도 럭셔리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페이(Fay)의 스타일은 익숙하면서도 세련되게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멋진 룩을 입은 세련된 패션 피플의 모습이 지난 3월 23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에 공개되었다. 페이만의 유니크한 컬링이 돋보이는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재킷을 입은 세계적인 모델 수주와 박형섭을 필두로 패션 블로거와 저널리스트가 선보이는 페이의 더블 라이프 프로젝트는 지금 가장 뜨거운 패션 모먼트라는 기록을 남겼다.

실용적인 우아함, 페이

투인원, '더블 라이프', 이 2개의 키워드를 뺄고는 페이(Fay)를 논할 수 없다. 비즈니스와 캐주얼, 시티 라이프와 아웃도어 등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탈리아인 패션 브랜드로, 실용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매력적인 컬렉션을 선보인다. 페이의 시작은 워크 웨어였다. 1970년대 말 토즈 그룹에 인수된 직후 미국 소방관들이 주로 입던 포버튼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내구성과 실용성이 탁월한 워크 웨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나일론과 코듀로이 코튼 소재에 메탈 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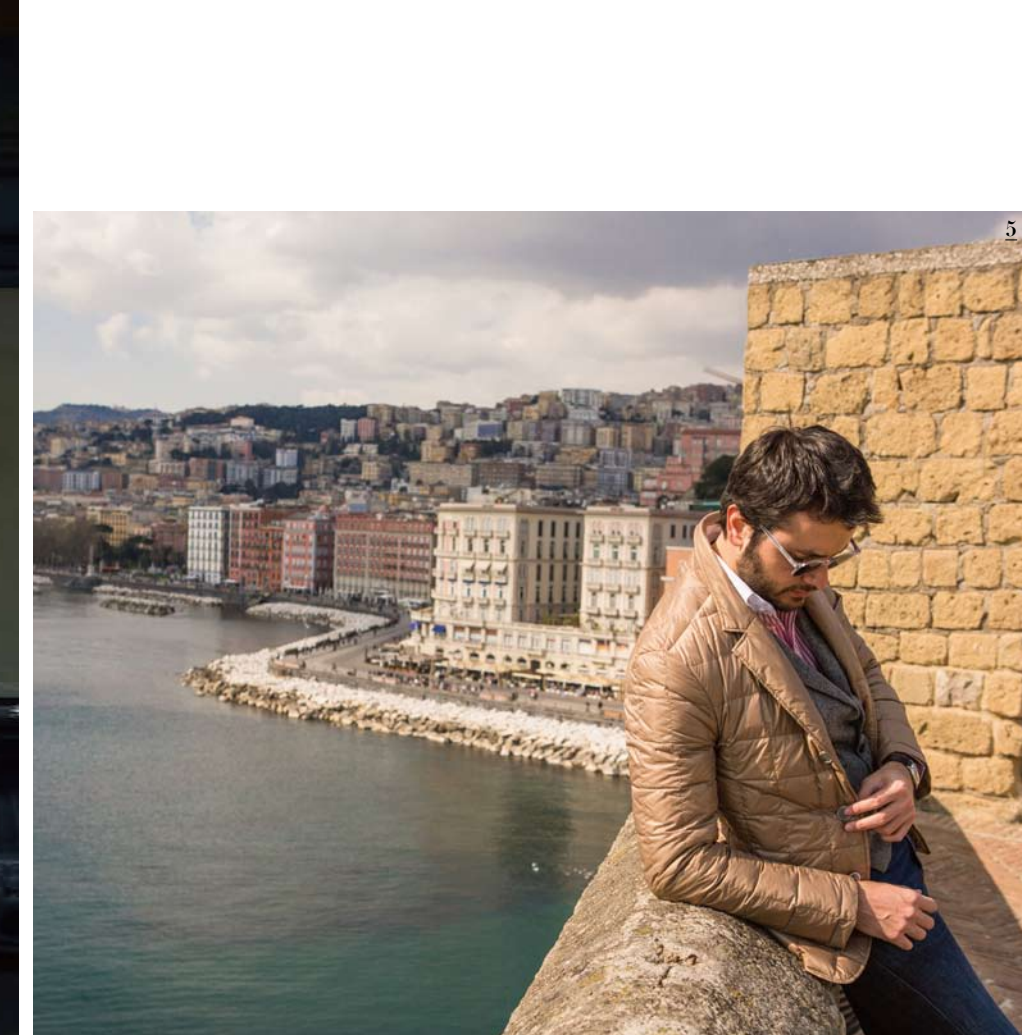


4개가 달린 '4 후크' 남성용 재킷을 생산했는데, 곧 페이의 아이콘이 이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이

는 페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중성, 즉 더블 라이프를 지향하는 페이의 DNA를 제대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페이는 더욱 다양한 소재와 패브릭을 사용한 다양한 버전의 '4 후크' 코트를 출시했고, 바람막이 기능의 베스트를 장착한 쇼트 코트까지 개발해 기능과 스타일을 겸비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남성복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갔다. 1990년대 초반에는 '투인원, 즉 코트와 재킷, 스웨터를 탈착할 수 있는 쇼트 코트, 방한과 방풍 기능을 강화한 더욱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페이의 컬렉션에서 더욱 눈에 띄는 점은 남성복 특유의 클래식하고 견고한 디자인은 그대로 살리되, 활동적인 스포츠 웨어의 디테일을 적용해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고 품위 있는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을 개척해낸 것이다. 새로운 스타일의 개척은 페이에 글로벌

브랜드라는 자각을 안겨주었고, 밀라노와 로마에서 탄생한 작은 브랜드는 이후 전 세계 고위 전문직 남성복과 비즈니스맨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우아한 남성복의 지표가 되었다. 현재 페이의 남성복 컬렉션 라인인 '트래블(Travel)', '시티 헌터(City Hunter)', '스타디움(Stadium)', '드라이빙(Driving)' 등 페이의 이중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다목적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즉 출장 가기 위해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지는 회의실 안에서, 그리고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순간에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이 바로 페이의 디자인 철학인 것이다. 1993년에는 여성복 시장에 진출했는데, 남성복에 적용한 '투인원'의 개념을 접목해 여성복 버전의 '4 후크 코트'를 탄생시켰다. 이 코트는 코튼 소재와 탈착 가능한 안감이 있는 나일론 소재로 제작해 여름과 겨울 모두 입을 수 있다. 남성복에서 출발한 브랜드의 전통을 이어받은 여성복 역시 '아티(Artic)', '콜로니아(Colonial)', '버지니아(Virginia)', '애스펜(Aspen)' 등 4개 라인과 에센셜 아이템인 더블 코트, 더블 재킷 등 아이콘



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2006년 여성 컬렉션으로 첫선을 보인 '헌팅(Hunting)' 라인인 이후 남성 컬렉션으로 재해석되기도 했다. 더불어 독특하고 세련된 액세서리 라인도 페이 룩을 완성해주는 든든한 조력자다. 다양한 소재와 컬러, 고급 소재 가죽과 진귀한 패브릭을 사용한 모던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는 페이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디지털에 펼쳐진 페이의 어번 시크 컬렉션

더블 라이프 프로젝트는 2010년 <더블 라이프> 사진집 발간 이후 페이가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야심작으로, 페이의 아이템과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즉 페이는 비즈니스와 레저, 어번 라이프와 아웃도어까지 한 가지 아이템만으로 다양한 상황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블 라이프 프로젝트는 당대 최고의 세계적인 패션 인물루언서를 엄격하게 선별해 개성과 감성이 돋보이는 감각적인 스타일링. 지난 F/W 시즌에 이어 이번 2015 S/S 시즌에는 한국의 패션 인물루언서 수주와 박형섭이 참여한 더블 라이프 프로젝트를 지난 3월 23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공개했다. 여기에 이탈리아 편집숍 '유 유 스토어(You You Store)'의 오니 겐 패션 블로거 엘레오노라 카리시(Eleonora Carisi), 네덜란드 출신의 패션 블로거 린다 톨(Linda Tol), 패션 블로거이자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 매슈 조르파스(Mattew Zorpas), 이탈리아인 패션 블로거이자 저널리스트 파비오 아타나시오(Fabio Attanasio)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페이만의 유니크한 컬링이 돋보이는 다양한 디자인의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재킷이 6명의 패션 인물루언서를 만나 개인의 개성과 각 나라의 감성이 돋보이는 스타일로 재해석되었다.

페이의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재킷은 페이의 철학을 보여주는 아이콘적인 아이템 중 하나다. 먼저 여성복을 대표하는 모델 수주는 컬링이 돋보이는 지퍼 장식의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재킷을 데님 재킷과 체크 스커트와 함께 연출한 스트리트 캐주얼 룩과 드레시한 롱 스커트, 스틸레토 힐, 벨트를 더한 세시한 감성의 페미닌 룩으로 선보여 양극의 매력을 드러냈다. 패션 블로거 린다 톨은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버튼 디테일의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재킷과 데님을 활용한 시티 룩과 편안한 소재의 트레이닝 팬츠, 스니커즈로 어번 스포티 룩을 완성하기도 했다. 엘레오노라 카리시는 패플럼 장식이 돋보이는 컬링 재킷과 스커트, 그리고 스웨이드 소재의 미니스커트와 사이하이 부츠를 매치해 1970년대 스타일이 돋보이는 페미닌한 감성의 스타일을 선보였다. 남성복은 모델 박형섭이 클래식한 디자인의 울트라 다운 재킷을 스트리트 감성이 돋보이는 데님과 스니커즈에 매치해 보다 젊은 감성을 드러냈지만, 파비오 아타나시오는 수트와 데님 팬츠를 활용해 이탈리아인 특유의 세련된 패션 감각을 마음껏 발휘했다. 매슈 조르파스는 스포티한 트레이닝복과 클래식한 수트를 활용해 뉴욕 특유의 활동적이고 컨템퍼러리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번 더블 라이프 프로젝트는 6명의 패션 인물루언서를 통해 세련되면서도 캐주얼한 페이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창조해 브랜드의 DNA를 제대로 각인시키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다. 탁월한 컬러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창의성을 결합한 진정한 이탈리아인 패션을 지향하는 페이의 다운 재킷은 다양한 상황과 장소,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아이템임을 증명했다. 페이의 더블 라이프 디지털 프로젝트는 www.fay.com/double_life를 통해, 사진 속에 등장한 제품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6층에 위치한 페이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10-1678 에디터 배미진

editor's Pick

계절이 바뀌니 자꾸만 새로운 화장품에 눈길이 간다.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뷰티 핫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인생로망 베르니 아레브로 팝 워터 틴트 202호** 그간의 인생 로망 베르니 제품 중 제일 마음에 드는 립 틴트. 일단 예쁜 컬러감은 두말할 것 없거니와 마치 물기가 가득한 듯 투명한 컬러감이 열매를 가득 머금은 것 같은 사랑스러운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주기 때문. 내추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에디터의 개인 취향으로는 입술 인색에 발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주는 것이 베스트였다. 6ml 4만원대.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권유진*

골레드로 보메 부르크 트랑스베림드 루스 파우더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으로 에이 크림을 마무리해주는 최상의 루스 파우더. 피운데이션을 바른 후 이 루스 파우더를 사용하면 부드럽고 균일하게 피부에 피착며, 쏘쏘보송하고 탱탱한 피부로 변신한다. 30g 17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해미*

아넬스 클라상스 엑스퍼트 에디션 네 가지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트러블 케어에 효과적인 아넬스의 대표적 제품. 오일 프리 타입의 가벼운 텍스처로 아 침착제 바르기에 부담이 없다. 트러블의 원인을 케어해줄 뿐만 아니라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부를 조습해주니 트러블 피부에 필수품. 40ml 2만2천원. 문의 1899-4802 *_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해미*

모로칸오일 하이드레이팅 샴푸 촉촉하고 쫄쫄한 거품이 인상적이고, 샴푸를 하는 동안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 역시 매끄러워 '역시 모로칸오일'이라고 외쳤을 정도. 성분표를 살펴보니 향산화 효과가 탁월한 이라칸 오일과 비타민 A·E, 홍조류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조한 탈수 모발에 강력 추천하는 샴푸다. 250ml 3만2천원. 문의 1666-5125 *_by 에디터 권유진*

돌 포드 뷰티 아이 컬러 듀오 로 제이드 디자인이 돌 포드의 럭셔리하면서 관능적인 감성이 그대로 담긴 아이샤도우. 베이지 톤 컬러와 카키 컬러의 매치가 매력적이다. 1970년대 로큰롤 스타일을 재해석한 제롬인 만큼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 제격. 미세한 밀 입자가 들어 있어 조영에 따라 은은하게 반짝이는 것이 인상적이다. 3.5g 6만2천원. 문의 02-3440-2760 *_by 에디터 김지혜*

랑콤 비유스 드라마 마스크라 마스크라의 대명사라 불리는 랑콤에게 드라마틱한 경험을 보장한다. 속눈썹 모양으로 디자인된 브러시를 사용해 벗어주면 속눈썹 뿌리부터 끝까지 마스크라 액이 1가방게 밀착돼 번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미온수로 세안하면 쉽게 지워져 번거로운 클렌징 단계를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 6.5ml 4만2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김지혜*

라쉬 볼카노 풋 마스크 생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신선한 민트를 가득 담아 지친 발에 청량감을 선사하는 이 풋 마스크를 발 전체에 두껍게 발라 비닐로 감싼 뒤 10분 정도 팩을 해줄 것. 피부의 노폐물을 흡착하는 카올린, 효소가 풍부한 파파이가 발에 쌓인 각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건조해진 피부에 메이크업 피부로 바꿔준다. 125g 1만8천원대. 문의 1644-2357 *_by 에디터 권유진*

엘비타 아피코스마 UHT 수딩 크림 피부가 민감한 이들이 반가워할 만한 무향부 제 크림. 유가농 인증을 받은 아카시아 꿀, 백리향 꿀 등 천연 재료만 사용한 제품으로, 완벽하게 민감도 테스트가 끝까지 1개월 사용 후 피부 개선 효과를 보인다. 무향이지만 텍스처가 충분히 스며들면서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40ml 6만 원대. 문의 02-544-2505 *_by 에디터 김지혜*

씨 비이 글로벌 씨 벨 오드 파퓸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폴리초스카트를 연상시키는 사랑스러운 보들 디자인이 인자 눈에 들어온다. 달콤한 향기가 날 것 같은 제품 디자인과는 달리 톡 톡 쓰는 듯 상쾌한 향이 느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차분한 플로럴 향기로 마무리된다. 방금 샤워를 마쳐 몸에서 기분 좋은 향기가 마구 풍기는 느낌을 받을 것. 50ml 10만2천원. 문의 02-6924-6572 *_by 에디터 김지혜*

다들 다들스킨 누드 탠 타이 에디션 코랄 썬 셋 트라게 빛나는 여름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듯한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 컬러가 믹스된 제품으로, 브러시를 사용해 광채를 부드럽게 올려주면 밤새 아근한 얼굴도 생기 있게 표현 가능 하다.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상쾌한 컬러를 자랑하는 것이 장점. 10g 8만2천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지혜*

겔랑 아베이 로얄 데일리 리페어 세럼 로열젤리가 들어 있는 마이크로 드롭스의 형태가 매력적인 세럼. 프랑스 청정 지역 워싱 성에산만 사용하는 블레이크 비에서 얻은 꿀과 로열젤리가 만나 피부 재생 능력을 촉진한다. 탁상을 따라 끈질기게 마사지 및 병행해 사용하면 얼굴선이 또렷해진다. 30ml 1만9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박해미*

벨리프 더 트루 크림-아쿠아 밤 요즘 즐겨 사용하는 켈 타입의 수분 폭탄 크림. 끈적이지 않거나 번들거리지 않아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밤에 수분 밸런싱 등 볼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윤기 있는 피부로 깨어난다. 특히 시원하고 상쾌한 텍스처가 트러블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100ml 6만3천원. 문의 080-023-7007 *_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해미*

아모레퍼마픽 모이스처 바운드 하이드레이팅 앰플 어떤 제품도 7개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아모레퍼마픽의 새로운 수분 앰플. 4개를 나누어져 있어 출장이나 여행 시 휴대하기 간편하고, 가용성으로 제격이다. 고농축 에센스 입자를 가벼운 제형으로 만들어 산뜻함과 촉촉함을 한 번에 해결한다. 5ml 4개 14만원. 문의 080-020-5757 *_by 에디터 박해미*



interview_ 에르메스가 사랑하는 조향 장인, 장-클로드 엘레나

Poetry of scent

“향이 하나의 단어라면, 향수는 하나의 문장이다.” 자신을 가리켜 향기를 쓰는 작가라고 말하는 조향사가 있다. 근사하지만 언뜻 알맹이 없는 클리셰처럼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에르메스의 전속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Jean-Claude Ellena)가 만든 향수를 '음미'해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인물임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향수를 설명할 때 그가 선택한 단어와 문장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으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과연 조향사들이 정의한다는 조향 장인답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들어선 국내 최초의 에르메스 퍼퓸 부티크에서 그를 만났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장편소설, 단편소설, 시,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인 짧은 단어로 이뤄진 몽상... 조향계의 예술가로 통하는 장-클로드 엘레나가 향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저는 향수가 문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향을 이루는 단어를 모아 향수라는 이야기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는 2004년 에르메스에 합류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 문화 장르를 따르는 자신만의 독특한 향수 분류법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그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 에르메스와 함께한 창조적 여정 속에서 세상에 선보여 온 향수 컬렉션은 '서재'라고도 불린다. 하나의 주제(theme)를 지닌 간결함을 담은 건 시,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인물이나 사건이 많지는 않은 느낌이라면 단편소설, 플롯이 재빨리 복잡하고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장편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남성적인 느낌이 짙고 복잡미묘한 향을 담은 에르메스의 베스트셀러 테르 데르메스(Terre D'Hermès) 같은 제품은 대표적인 장편소설로 분류된다.

원색한 창작의 자유 속에서 무르익은 조향의 혼
장-클로드 엘레나와 에르메스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던 것 같다. 에르메스처럼 장인 정신 충만한 브랜드도 드물고, 향수의 고장인 프랑스 남부 그라스에서 태어나고 조향사 집안에서 자란 그 역시 장인의 면모를 가득 품고 있다. 실제로 에르메스에 전속되는 '인하우스 조향사'라는 그의 직함은 향수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장인 정신으로 대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전속 조향사를 두는 브랜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1970년대부터 향수 선택권이 조향사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를 분석하는 기업 마케팅 팀으로 대부분 넘어가 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런데 에르메스의 장-루이 뒤마 회장은 제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죠. ‘숫자나 마케팅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창작을 해달라고요. 굳이 남녀 향수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의미 없는 마케팅이거든요.’”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온전한 창작의 자유. 그 어떤 크리에이터가 이런 제안을 뿌리칠 수 있을까? 게다가 그는 1951년부터 향수 사업을 해온 에르메스의 첫 번째 작품을 만든 혁신적인 조향사 에드몽 루드니츠키의 열렬한 숭배자이기도 했다. 장-클로드 엘레나는 끼꺼이 에르메스와의 동행을 택했고, 나중에는 전속 조향사를 둔 향수 브랜드가 하나둘 생겨났다. 그가 처음 만든 에르메스 향수는 지중해의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자르덴 데 미디테라네'(Un Jardin en Méditerranée), 무화과와 산나무, 베르가모트 향이 나는 이 향수를 그는 '중편의 여행담' 정도로 여기는데, 실제로 지중해 정원을 돌아보고는 3일 만에 만들었다고 한다.

여백의 미를 사랑하는 크리에이터
그렇다고 해서 속전속결형은 결코 아니다. 그는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형상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장소와 선택한 소재에서 출발해 향수를 만든다고 강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때로는 “그분이 빨리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나는 고민에 익숙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는 한 향수를 만드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한 적도 있다. 바로 그



가 개인적인 향수라고 표현할 만큼 애정을 쏟아 아 만든 '에르메상스(Hermessence)' 컬렉션 작품이다. “한 사람이라도 좋아 하면 만족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독특한 느낌이 배어나는 이 향수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에르메상스 컬렉션을 일본의 전통 시인 하이쿠처럼 간결하고도 강렬한 감성으로 풀어냈다고 설명하면서 그는 동양 문화와 자신의 향수 철학이 일맥상 통하는 면이 많다고 말했다. “1970~80년대에 일본과 중국 등을 방문하면서 우연히 미술 등 동양 문화를 접했는데, 여백을 중시하는 저의 성향과 맞닿는 걸 느꼈어요. 저는 여백도 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향의 여백이야말로 문화처럼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리다. 향 역시 그걸 즐기는 자의 것이니까. 그는 이번에 중국의 정원을 거닐다가 영감을 받아 만든 향수를 내놓기도 했다. 정원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인 '자르덴 데 미디테라네(Le Jardin de Monsieur Li)'. 그런 노트 향이 상큼하면서도 은은한 이 작품은 그의 분류법에 따르면 단편소설이다. 이쯤 되자 궁금해졌다. 문학 애호가이기도 한 이 나이 지긋한 조향사가 혹시 자신의 글을 쓰지는 않는지? 별로 놀랍지 않게도, 그는 이미 네 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다. 그중 자신의 일상적인 조향 작업 중 떠오른 단상과 철학을 담은 책 (어느 조향사의 일기 (Journal d'un Parfumeur))는 ‘나는 향수로 글을 쓴다’라는 번역서로 갖 나왔다. 글에서 풍기는 진솔함이 그의 향수를 닮았다. 문의 02-310-5174 *에디터 고정연*



1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에르메스 퍼퓸 부티크. 2 조향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통하는 에르메스의 전속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 3 에르메상스 컬렉션의 재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전성향 '작'의 작품들. 4 고요한 아침에 가난 중국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최신허 '자르덴 데 미디테라네'의 작품들. 5 에르메스 퍼퓸 부티크의 내부 모습.

sweets in Saint-Germain

“우리, 테라스에서 만날까?” 이 한마디에 당신은 파리 카페의 주인공이 된다. 카페에 앉는 순간, 날씨와 분위기를 즐기며 “마실 것 한잔만 주세요”라는 짧은 주문을 외치면 충분하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만끽하는 네 가지 장소, 4개의 스타일, 그리고 각각 개성 있는 4개의 다른 느낌.



Le Germain

르 제르맹 비스트로는 이국적인 인도 무드로 가득하다. 레스토랑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거인 조각상은 현대적이면서도 이타스틱한 존재감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노랑과 빨강, 블랙과 화이트 등 강렬한 색상 대비가 이국적인 느낌을 더욱 강조한다. 이곳에서는 파리지만 단골손님은 물론 스타일리시한 여행객, 배우, 감독,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멋쟁이가 다양한 취향과 여유를 즐긴다. 멋진 테라스에 앉아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치즈 버거나 피시 앤드 칩스를 맛볼 수 있는데, 채식주의자를 위한 스프링 롤도 준비되어 있다. 밤이 되면 비텐다가 손님의 눈앞에서 직접 르 제르맹의 시그니처 칩티일을 만들어준다.

주소 25-27, rue de Buci, 75006 문의 01 43 26 02 93, www.beaumarty.com



Le Comptoir du Relais

재능 많고 모험심 가득한 파리자이언 이브 캠프보르데는 2005년 이곳에 카페를 열었다. 이후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밤이 되면 이 카페는 허안 테이블 클로스로 같이하고 구르메(gourmet) 레스토랑으로 변신한다. 주문을 주고받는 카운터와 고객들의 다양한 약간의 레스토랑을 더욱 활기있게 만든다. 연어와 훈제 청어알로 만든 크로크무슈는 이 레스토랑의 아주 창의적이고 놀라운 메뉴 중 하나. 그 밖에 생강을 곁들인 참치 타타, 훈제 햄 크로켓, 밤이 속에 담긴 차킨 스프링 롤 등은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주소 9, carrefour de l'Odéon, 75006
문의 01 44 27 07 50, www.hotel-paris-relais-saint-germain.com

출처 Aurélie des Robert 사진 Valérie Lhomme



Le Basile

그르넬(Grenelle)과 생기욤(Saint-Guillaume) 거리 사이 코너에 위치한 레스토랑 르 바질은 학구적인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즈트다. 이곳에 들어서면 문학이나 인문과학에 대해 토론하면서 술을 마시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밤 달란과 맥 재가의 사진, 빨간색 가죽으로 만든 긴 의자 등으로 장식한 이 레스토랑의 1960년대 이전 레트로풍 인테리어를 매우 좋아한다. 해피 아워에 제공하는, 카방베르 빵가루를 입혀 튀긴 골든 칩, 연어와 아스파라거스 소스를 곁들인 베이글은 당시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다.

주소 34, rue de Grenelle, 75007
문의 01 42 22 59 46, www.cafe-le-basile.com



Les Deux Magots

1885년에 처음 문을 연 르 데 마고 카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름과 단어를 품고 있다. 시몬 드 보부아르, 장 폴 사르트르, 앙드레 브르통... 그리고 그들의 영혼까지. 1933년, 르 데 마고 문학상이 제정되었고, 첫 수상자는 레이몽 크노였다.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이 카페를 지배하는 건 그래서 자못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곳의 생제르맹 샐러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입맛을 돋우며, 비싼 빵 조각을 넣은 터트타르, 프레시한 토마토와 영소 치즈를 레이어드한 케이크는 너무나도 유혹적이다.

주소 6, place de Saint-Germain-des-Prés, 75006

문의 01 45 48 55 25, www.lesdeuxmagots.fr / www.comite-saint-germain.com



SHOWROOM



릴프 로렌



릴프 로렌 풀가 도트 소프트 리키 백 릴프 로렌 이 리조트 룩과 함께 풀가 도트 소프트 리키 백을 출시한다. 매 시즌 새로운 디테일로 색다른 느낌을 선사하는 리키 백 중 소프트 리키 백은 부드러운 네가죽을 사용해 무게를 줄인 덕에 릴프 로렌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시즌에 선보이는 리키 백은 프랑스의 휴양지 리비에라에서 영감을 받은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도트 패턴을 사용해 유니크한 스타일 룩을 연출하기에 제격인 아이템이다. 네이비 가죽에 화이트 도트 패턴을 더한 2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45-8200

펜디 미니 칼리토 펜디에서 더 작아진 미니 칼리토를 선보인다. 2014 F/W 컬렉션에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은 칼리토는 칼 가드먼트를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이다. 아이코닉한 블랙 인크 스몰라와 블랙 레더 데이, 그리고 실버 톱스 보이드와 화이트 서츠에 다양한 컬러의 패턴을 더한 화이트 있는 디자인으로, 이번 시즌에는 더 작아진 참으로 선보인다. 핑크, 네온 블루, 옐로, 스카이 블루 등 다양한 컬러로 출시된

다. 문의 02-2056-9023

셀린노 시메트릭얼 백 셀린노에서 2015 S/S 시즌을 맞아 '시메트릭얼 백'을 출시한다. 가방 앞부분의 구조가 동일한 디자인에 오버사이즈 스티치 가죽 클로저의 디테일을 더해 시크한 무드를 자아낸다. 스웨이드 인감을 사용해 고급스럽고,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실용적이다. 천연 송아지기죽과 블랙, 버건디, 텐드 3가지 컬러 중 선택 가능하다. 문의 02-3213-2298

DVF 보이저 컬러 블록 폴드오버 포켓 DVF에서 풀링 방식의 클라치 '보이지 컬러 블록 폴드오버 포켓'을 선보인다. 블랙 컬러의 천연 송아지기죽으로 만든 클라치, 포켓 디테일과 레오파드 패턴이 돋보이는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데일리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문의 02-3442-7114

루이 비통 루이 비통 시리즈 2-과거, 현재, 미래 전시 루이 비통에서 (루이 비통 시리즈 2-과거, 현재, 미래) 전시를 개최한다. 루이 비통 여성복 디렉터 니콜라 라스키에가 2015 S/S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받

은 영감을 총 9개의 테마별 컬러를 통해 선보인다. 특히 파리 패션 위크 기간에 선보인 패션쇼 현장용 전시 형태로 제한할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개최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문의 02-3432-1854

브리오니 2015 S/S 수미주라 이벤트 브리오니에서 최고급 알데일 맞춤 서비스인 '수미주라 이벤트'를 연다. 개인별 사이즈와 체형은 물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까지 반영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맞춤 수트와 함께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익스클루시브 페넬라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최고급 원단을 선택할 수 있어 특별함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창치에도 맞춤 서비스를 적용한 진 수미주라 서비스를 진행해 피크 워싱, 실의 컬러와 버튼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오는 5월 31일까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문의 02-3274-6482

발리 2015 S/S 컬렉션 프레스 프레젠테이션 발리는 지난 3월 5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2015 S/S 컬렉션의 프레스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했다. 새로



용평리조트

제이 린드버그



부임한 디자인 디렉터 파블로 코폴라의 지휘 아래 젊은 감각으로 업그레이드된 이번 컬렉션은 클래식함에 기반을 둔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 남성 컬렉션은 편안하면서도 유니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데, 여성 컬렉션에서 받은 영감을 섬세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 컬렉션은 부드러운 실루엣과 피난난 무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밖에 미니 백과 주얼리 세공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페이브 도트 기법을 사용한 제품을 중심으로 선보였다. 문의 02-3467-6213

미우미우 프리콜 15 프레젠테이션 미우미우는 지난 1월 26일 파리에서 미우미우 프리콜 15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콘셉트가 다른 공간에서 미우미우 컬렉션을 담은 마케팅들이 무리 지어 디스플레이된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상반된 콘셉트들이 조화를 이루었다. 1920년대 어린이들의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보이스카웃의 소츠와 칼라 디테일을 표현했고, 성숙 홀스를 연상시키는 체크 패턴이 눈에 띄었다. 문의 02-3218-5331

페이 더블 라이프 프로젝트 페이에서 브랜드의 철학을 보여주는 새로운 디지털 프로젝트 '더블 라이프'를 론칭했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프로젝트로,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나라의 패션 트렌드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톱 모델 수주, 박형성이 참여했다. 유니크한 컬러가 돋보이는 페이의 올트라 라이프 다양한 재킷을 다양한 상황에 연출해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스타일링을 사진에 담아냈다. 그들의 감각적인 리얼 룩은 페이 홈페이지(www.fay.com/en/double-life)에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10-1678

제이 린드버그 TX 프로그램 제이 린드버그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TX 프로그램 라인을 선보인다. 제이 린드버그의 독자 기술로 만든 TX 저지 소재와 TX+ 저지 소재를 사용했으며, 뛰어난 신축성과 내구성 을 자랑한다. 또 부드럽고 구김이 적어 장시간 운동해도 깔끔하게 착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풀로 셔츠부터 원피스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에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문의 02-542-0385

FASHION

JEWEL



반클리프 아펠 반클리프 아펠에서 알함브라 컬렉션의 새로운 라인인 매직 알함브라 롱 네크리스를 선보인다. 행운의 모티브인 알함브라를 메디오브렐, 오닉스, 카발리인, 다이아몬드 파베 등 4가지 버전으로 확장해 기존 매직 알함브라 라인에 풍성함을 더했다. 네크리스를 한 줄 혹은 두 줄로 길어 연출하거나, 손목에 여러 번 길어 브레이슬릿으로도 착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문의 02-3440-5660

몽블랑 2015 세종 챔버 시리즈 몽블랑이 한국 예술 발전을 후원하는 의미를 담아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실내악을 위한 연간 프로젝트 '몽블랑과 함께' 하는 세종 챔버 시리즈를 선보인다. 3월 13일, 5월 30일, 9월 8~9일, 12월 1~2일 오후 8시 세종 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서울 시청과 KBS 교향악단 단원이 참여하며 스트링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양성현과 주연선, 유점 최정성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2-2118-6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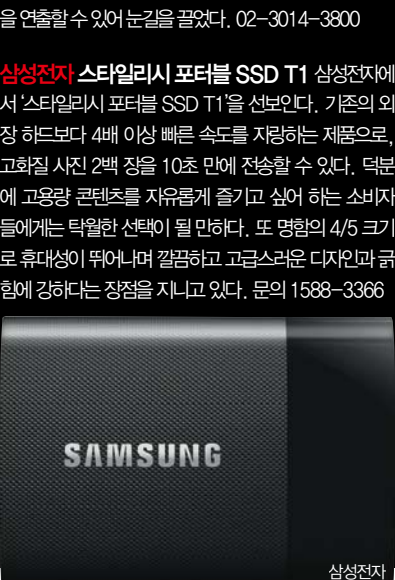
오메가 #ImagineOMEGA 오메가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ImagineOMEGA 일곱 번째 시리즈를 선보인다. 유리병 속에 꾸민 오브제를 통해 색다른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이번 모델은 레이다메릭 플라워 워치. 세계 최고의 기계식 무브먼트 시계로, 5개의 오메가 로고를 걸쳐 마치 한 송이 꽃처럼 보이도록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여기에 레드 골드 케이스와 화이트 컬러의 레디 스트림을 매치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오메가 코-엑스비컬리 버 8421 무브먼트와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했다. 문의 02-511-5797

타사키 리파인드 라벨리온 링 타사키에서 리파인드 라벨리온 링을 소개한다. 18K 옐로 골드 밴드에 이로우 진주를 세팅한 독특한 디자인의 링으로, 진주 끝 부분에는 타사키가 고안한 리파인드 라벨리온 커팅으로 가공한 진주를 세팅해 더욱 눈길을 끈다. 진주 표면은 커팅해 완성을 세팅했다는 점에서 기존 주얼리와 차별화되어 소장 가치가 높다. 문의 02-3461-5558

타파니 하모니 링과 밴드 링 타파니에서 4월의 신부를 위해 '타파니 하모니 링과 밴드 링'을 제안한다. 앙골이 하나로 모아지는 밴드가 두 사람의 조화를 상징하는 타파니 하모니 링은 라운드 브릭포인트 컷 다이아몬드를 4개의 프롬이 완벽한 비율로 떠받치고 있어 세련되면서도 단아하다. 다이아몬드 웨딩 링을 더욱 빛나는 밴드 링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밴드 링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볼륨감 있게 연출하며, 심플한 플라타너 소재의 밴드 링은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밴드 링만 착용하면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LIFE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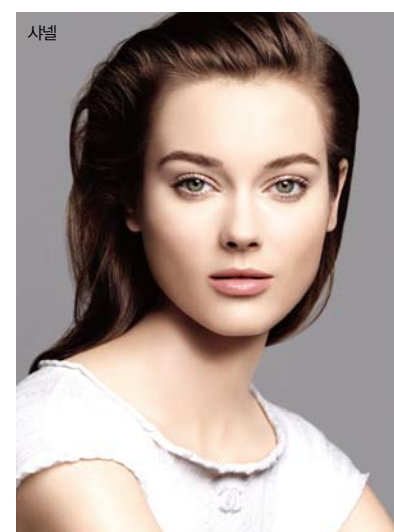
용평리조트 버치힐 테라스 레지던스 용평리조트의 프리미엄 브랜드 '버치힐 테라스 레지던스'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을 제공한다. 남쪽을 향한 시원한 뷰가 눈에 띄는 1층 화이트 테라스는 여유를 선사하며, 천연 석재와 나무의 질감을 살린 인테리어가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거실, 마스터 베드 룸, 세컨드 마스터 베드 룸과 서구식 패밀리 룸을 갖추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유리벽을 사용해 실내와 외부 자연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도록 연출했다. 문의 02-3270-1137



삼성전자

삼성전자 스타일리스 포터블 SSD T1 삼성전자가 스타일리스 포터블 SSD T1을 선보인다. 기존의 외장 하드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제품으로, 고화질 사진 2백 장을 10초 만에 전송할 수 있다. 덕분에 고용량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탁월한 선택이 될 만하다. 또 명량의 4/5 크기 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균형에 강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문의 1588-3366

풋조이 2015 FJ 쇼케이스 풋조이에서 지난 3월 5일 2015 FJ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골프 장인과 골프화를 필드용 한층 다양한 컬러의 제품을 구성해 패션-기능 겸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특히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안정적 인soles을 기능하게 하는 하이퍼 플렉스 골프화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함께 선보인 아메럴린 역시 일상생활에서 캐주얼하고 세련된 룩



샤벨 베르렉씨옹 루미에르 엑스트렘 샤벨에서 높은 캐버력을 자랑하는 피부과 파운데이션 베르렉씨옹 루미에르 엑스트렘을 선보인다. 피자를 빠르게 흡수하고 유분을 조정에 하루 종일 보습보습한 피부로 연출해주며 고정력이 뛰어나다. 또 섬세한 텍스처가 피부에 밀착되어 자연스럽게 광채가 나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67지 컬러를 27지 계열로 나누어 출시해 선택의 폭이 다양한 것도 장점이다. 문의 080-332-2700



이모레파시픽 모이스춰 바운드 하이드레이션 앰플 이모레파시픽에서 수분이 가득한 건강한 피부를 가꾸줄 '모이스춰 바운드 하이드레이션 앰플'을 출시한다. 각종 미네랄과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한 데나루 수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동시에 공급된 수분을 오래도록 유지해준다.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유도체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피부 깊이 장점은 수분력을 활성화해 촉촉한 피부를 케어해준다. 특히 이모레파시픽만의 고압 유향 기술을 통해 고농축 에센스 인자를 가벼운 제형으로 만들어 피부에 신포해 발리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80-020-5757

디올 디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 디올에서 극도로 가벼운 누드 스킨을 연출해줄 디올스킨 누드 에어 세럼 파운데이션을 선보인다. 공기처럼 가벼운 텍스처가 특징으로, 소량으로도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벨벳처럼 매끄럽게 마무리된다. 특히 에어 비블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물성 오일과 크렌

베리 오일, 미니멀워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촉촉함과 활력을 준다. 문의 080-342-9500

에르메스 자르맹 무수 리 에르메스에서 자르맹 무수 리를 출시한다. 에르메스의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가 선보이는 자르맹 시리즈의 다섯 번째 향수로, 중국 정원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린 노트 계열로 싱그러움 향이 돋보이며, 자연을 연상시키는 푸른빛과 중국 향기를 뜻하는 옐로 컬러의 보틀이 고급스럽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오픈한 국내 최초 단독 파퓌 부티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310-5174



수블리마지

샤넬이 창조한 또 하나의 작품, 수블리마지 레쌍스를 소개합니다. 강력한 안티에이징 농축물이 피부 속 노화물질을 정화시켜, 피부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가리어졌던 빛을 이끌어냅니다. 새로운 빛을 머금고 젊음의 생기로 되살아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빛의 결정체, 수블리마지 레쌍스

샤넬,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CHANEL